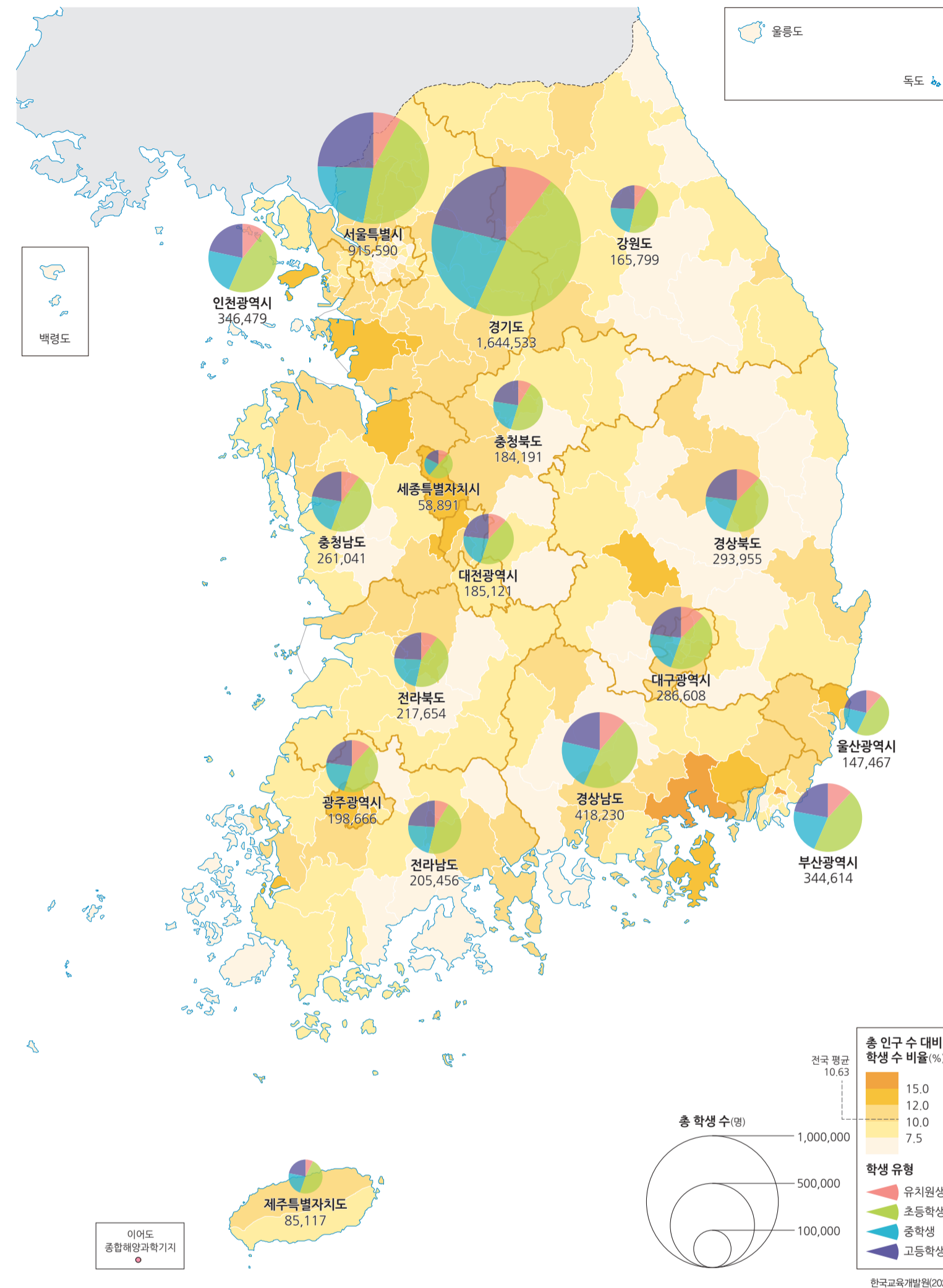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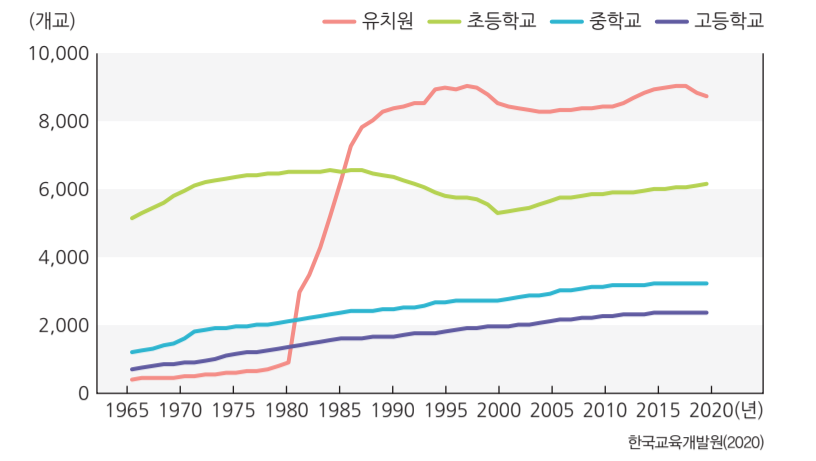


교육의 변화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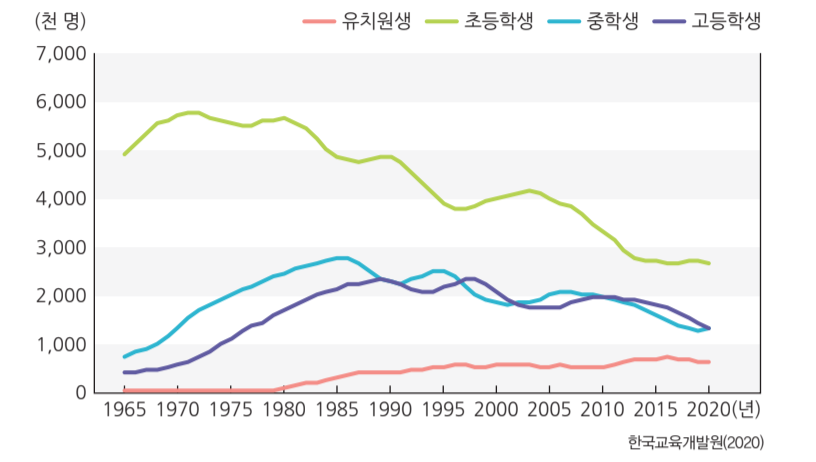
학교 급별 학생 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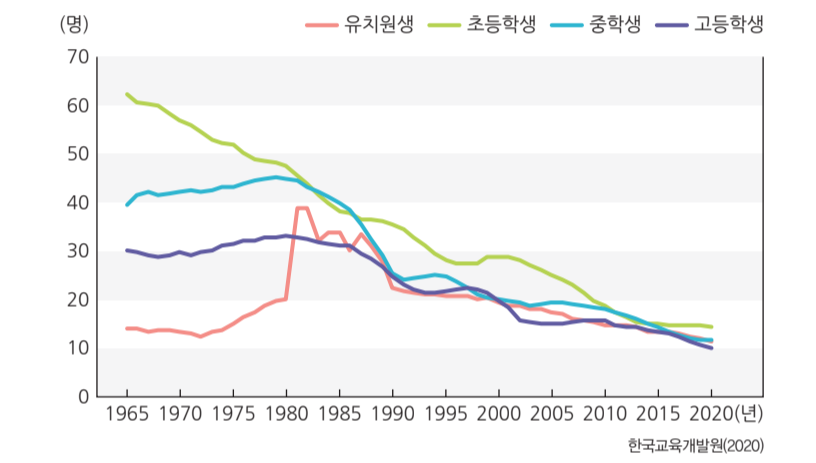
학교 수(196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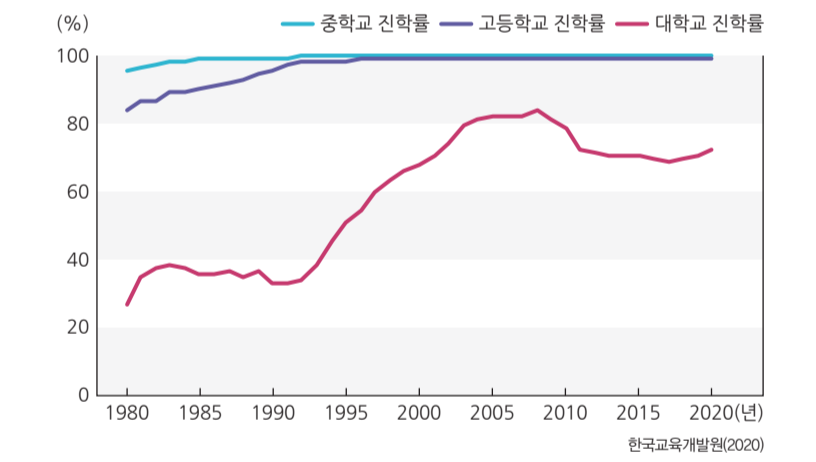
학생 수(196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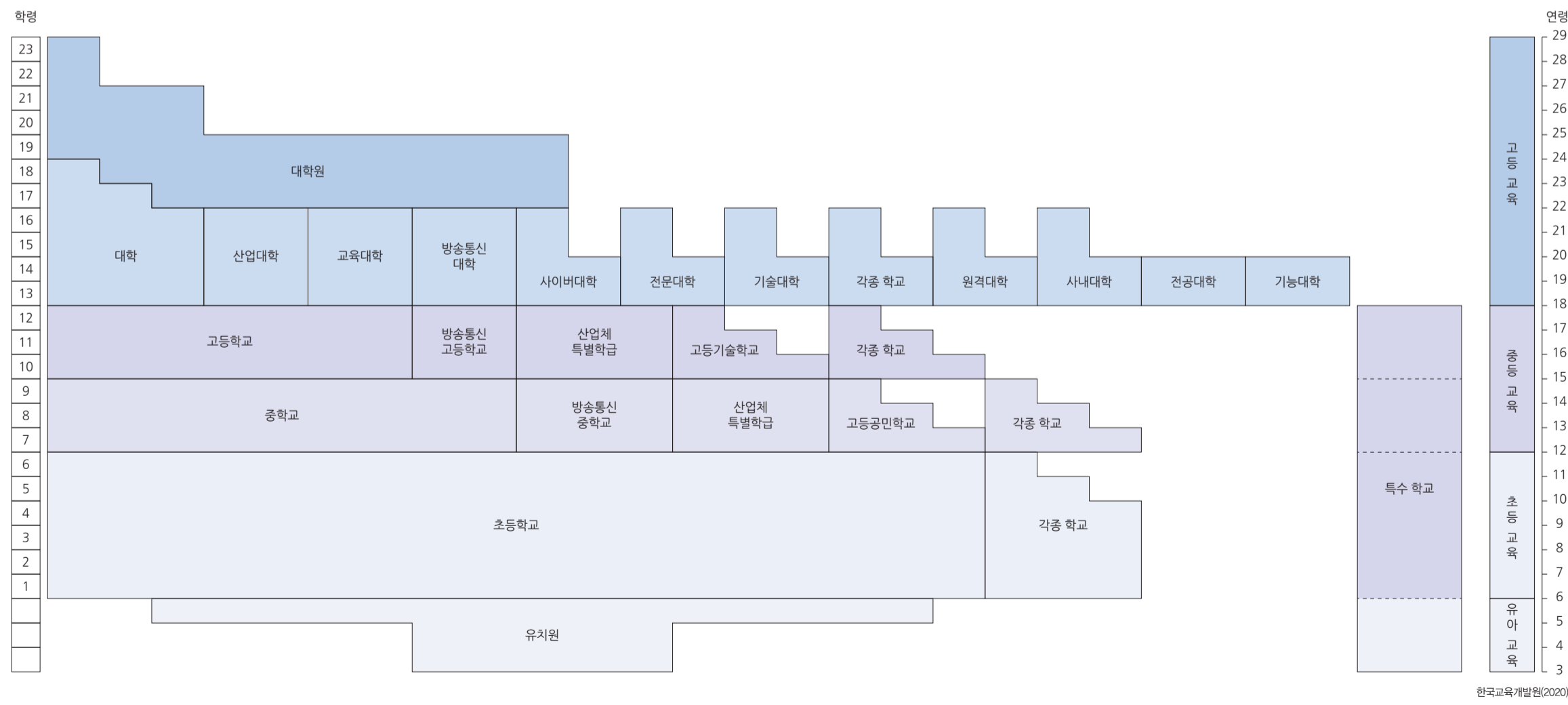
교사 1인당 학생 수(1965-2020년)



진학률(1980-2020년)



대한민국 학제



교육은 현대 한국인의 관심과 고민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은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구조, 가계 지출, 주거지의 선택과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깊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비에 대한 많은 지출은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민 국가의 성장과 함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학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초등 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 교육,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6년의 초등 교육과 6년의 중등 교육을 마치게 되며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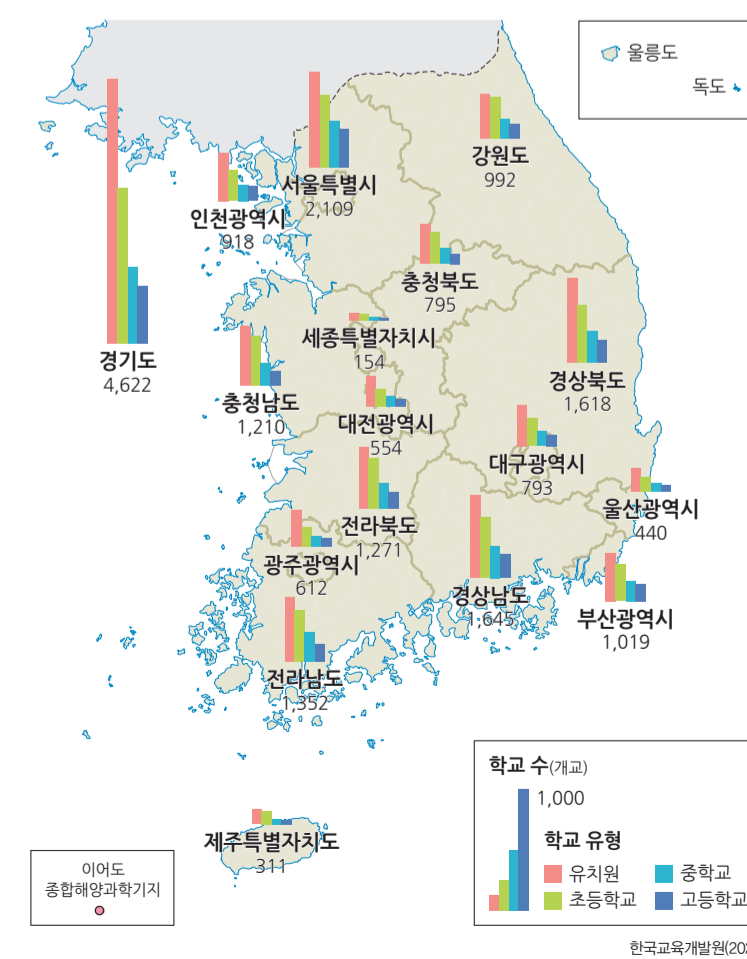
준을 보이고 있다. 각 학령 연령별 교육은 다양한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과 중등 교육은 국가가 설립한 공교육 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립 교육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다양한 학교가 존재한다. 특히 학령이 높아질수록 진

학, 취업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많다. 최근에는 국제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고등 교육은 4년제 일반대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의 목적을 가진 대학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원격대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원을 통해 석사와 박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대학원으로 유학하는 학생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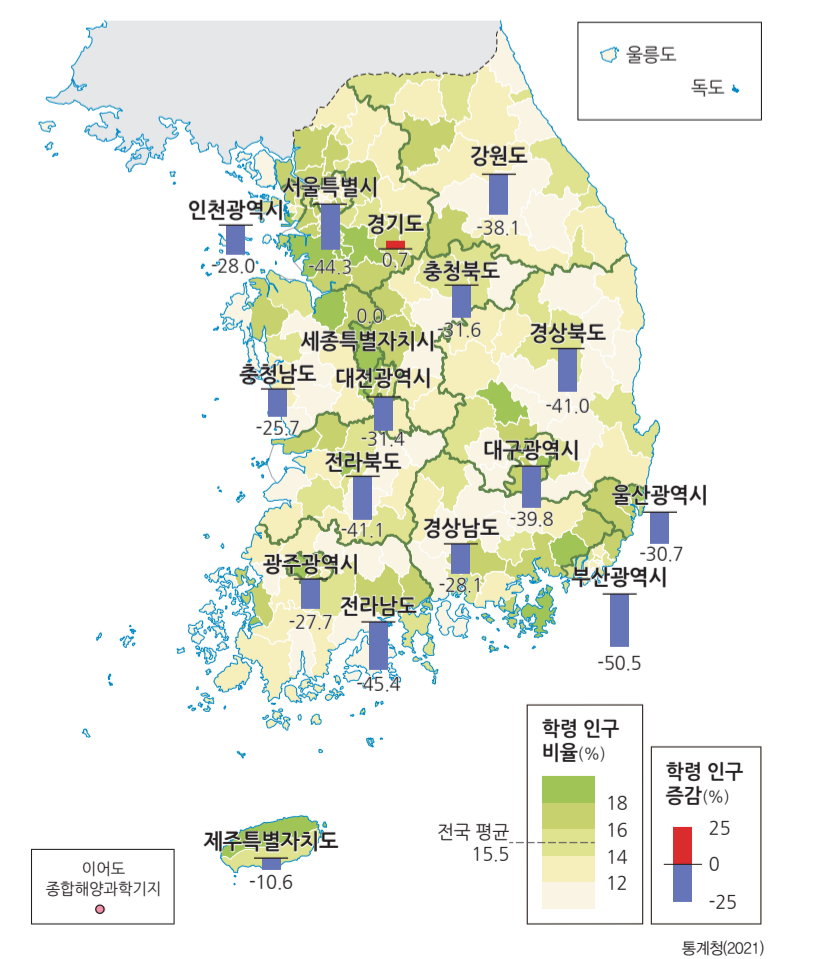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중학교 진학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100%에 도달하였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1990년대 중반 이후 100%에 근접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유치원 수는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학생 수는 학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생의 수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수의 증가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로 돌아서게 되었다.

학교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의 충원도 꾸준히 이루어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학령 인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큰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경기도에서만 학령 인구가 늘어났으며 다른 지역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학교 급별 학교 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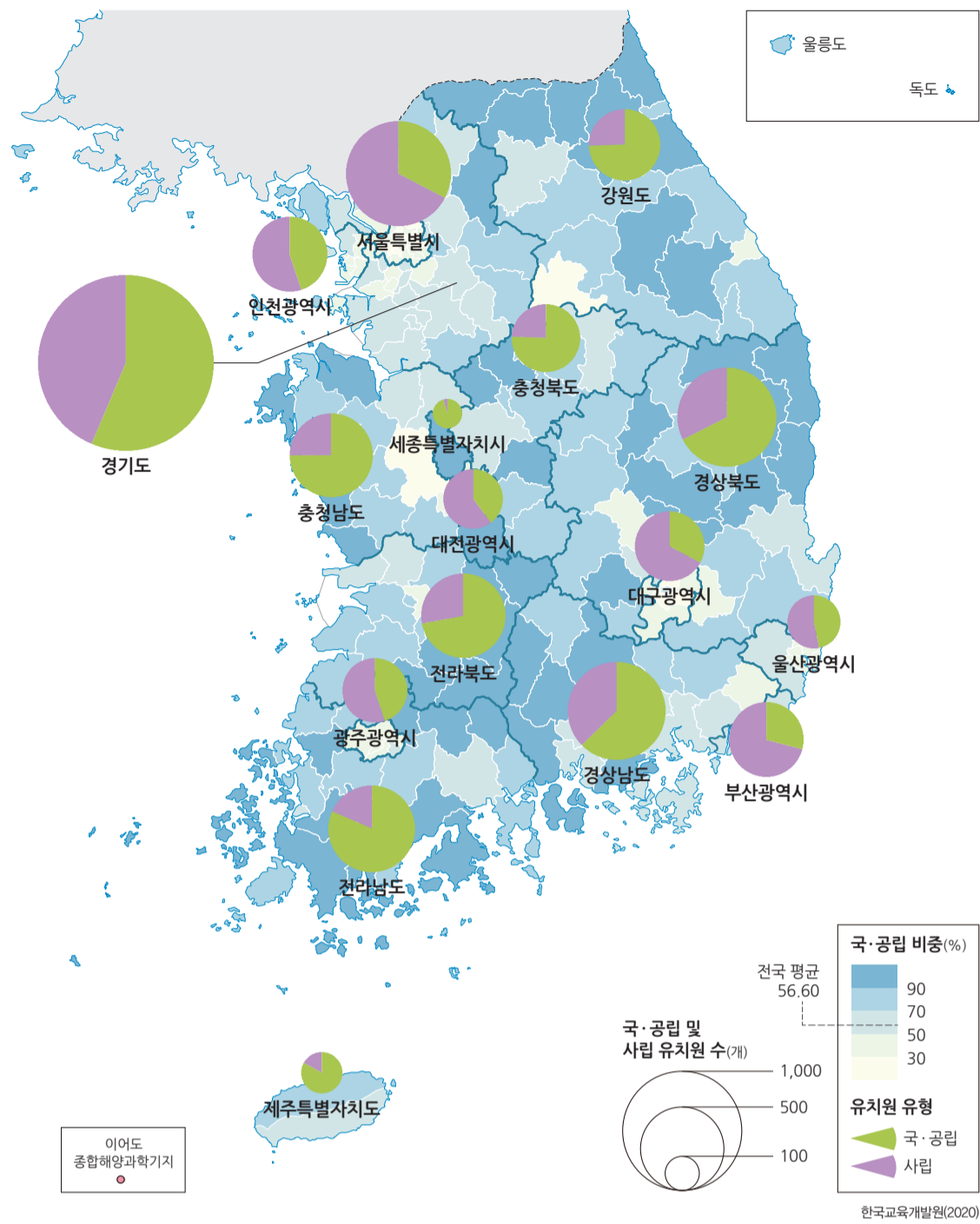


학령 인구 변화(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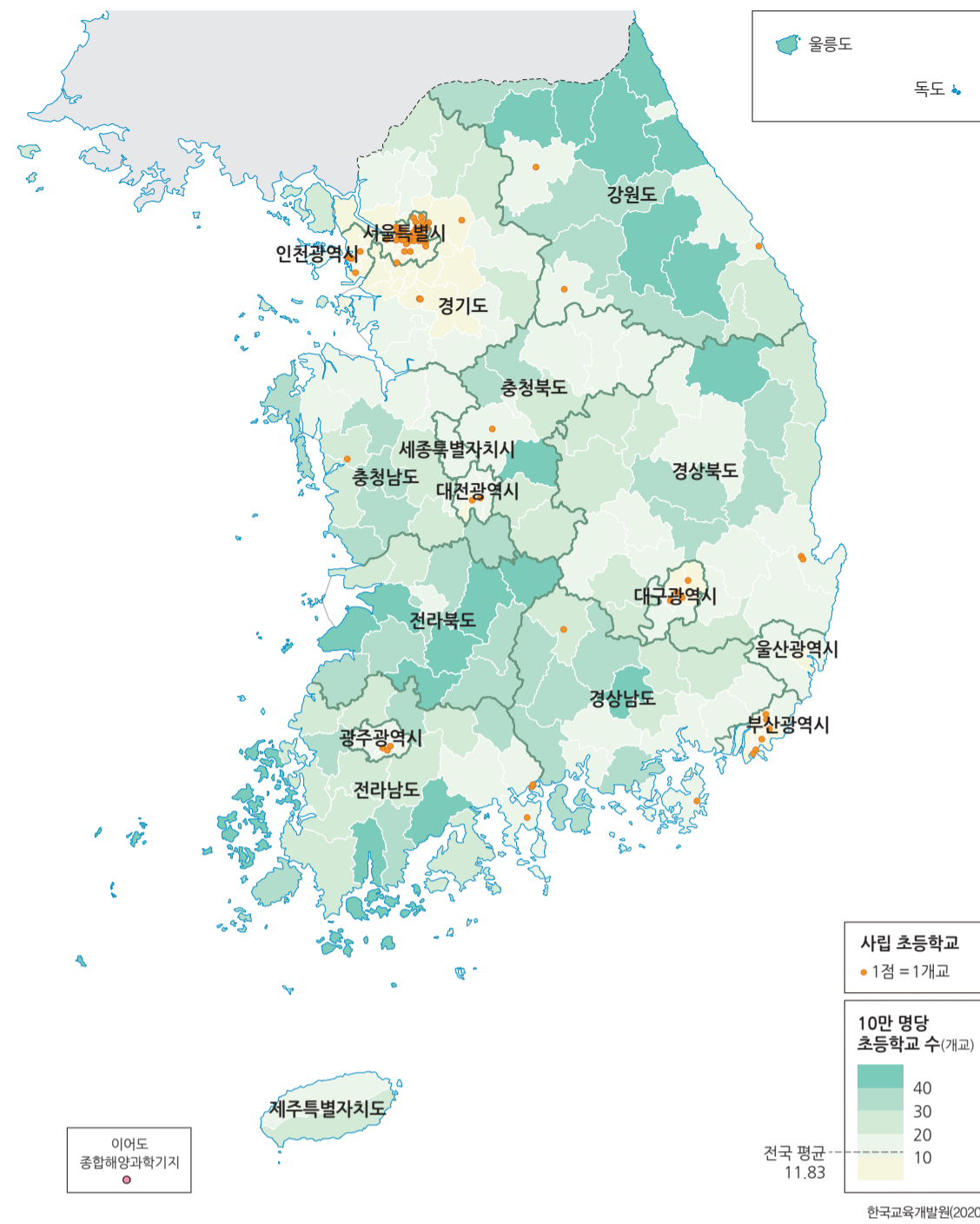


취학 전 및 초등 교육

유치원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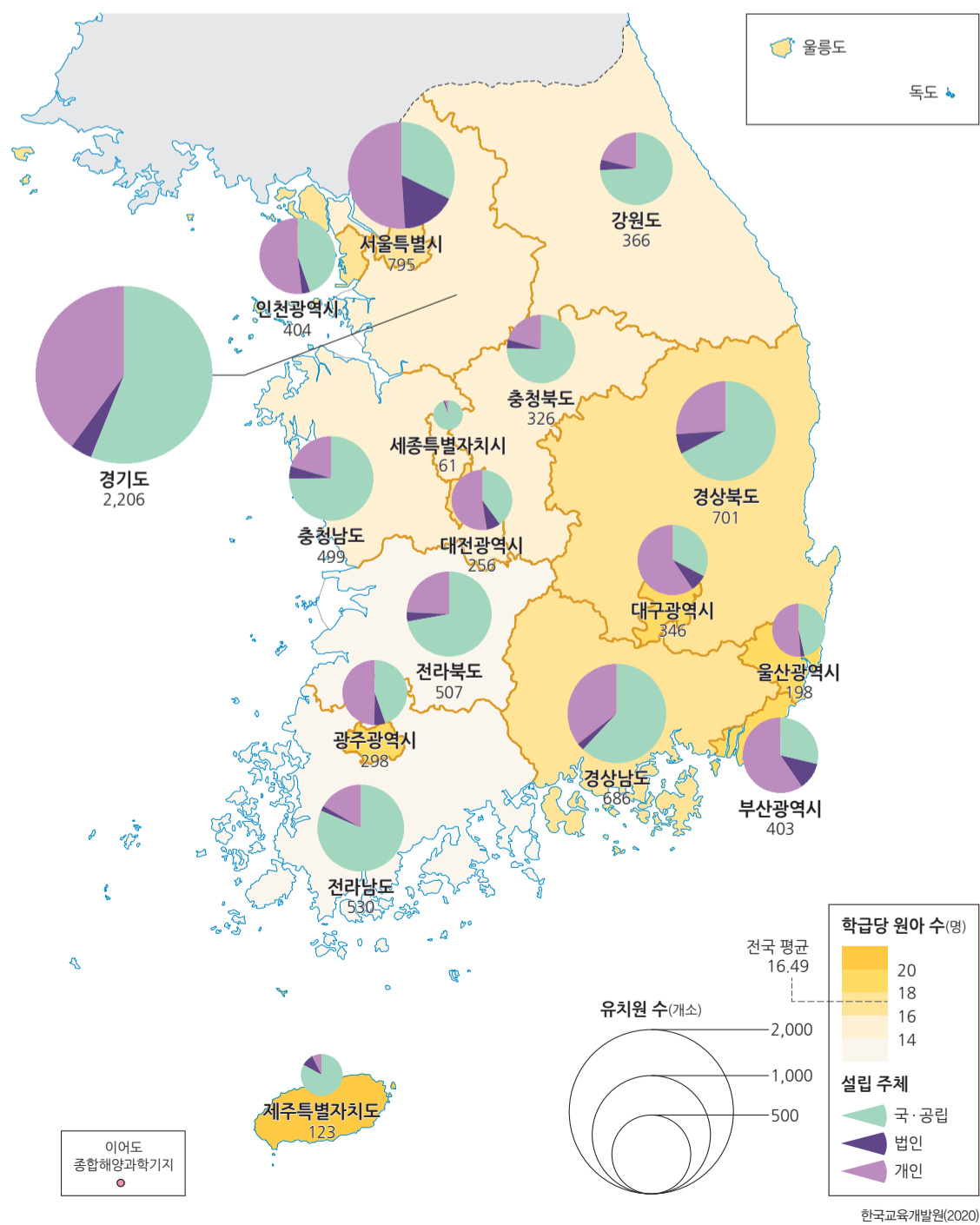
초등학교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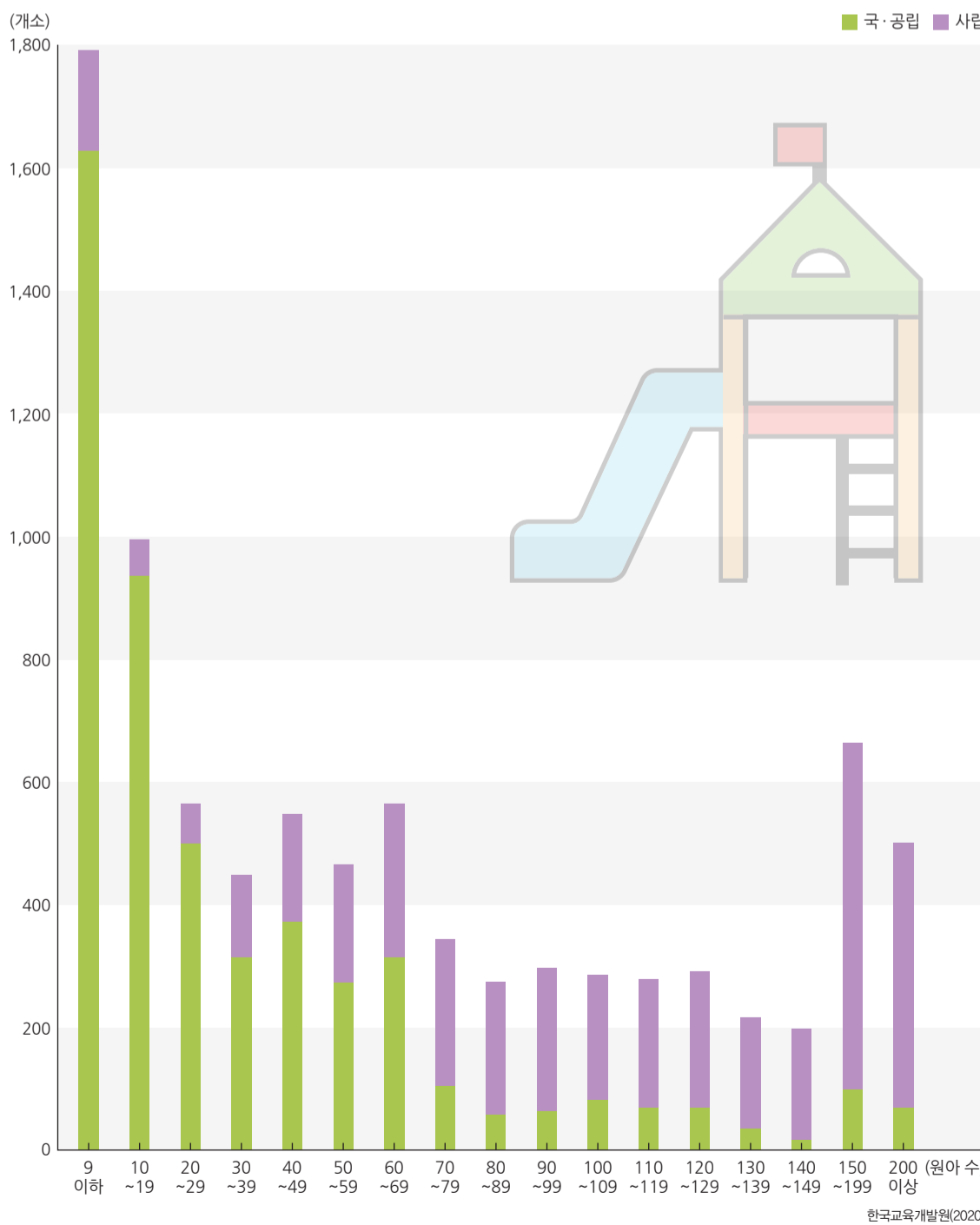
유치원은 설립 주체별로 국·공립, 법인, 개인 운영으로 나뉘며, 국·공립 유치원은 주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 복지나 종교 단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법인 유치원에 속한다. 또한 대도시와 원아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다양한 사립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주로 국·공립 유치원이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아 수가 적은 경우도 많다. 반면 사립 유

치원의 경우 도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국·공립 초등학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다수의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상과 반대로 신도시 지역 등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다수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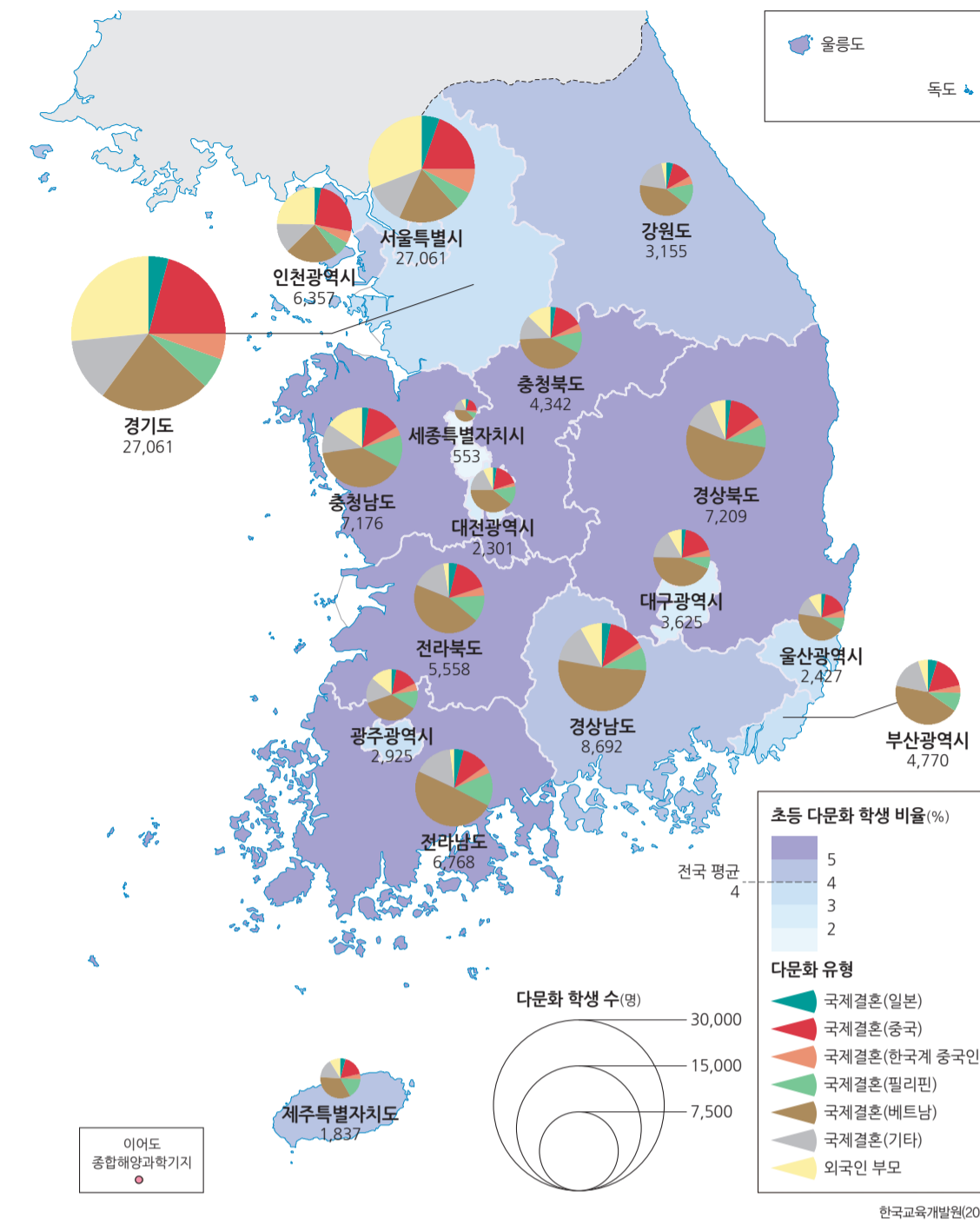
설립 주체별 유치원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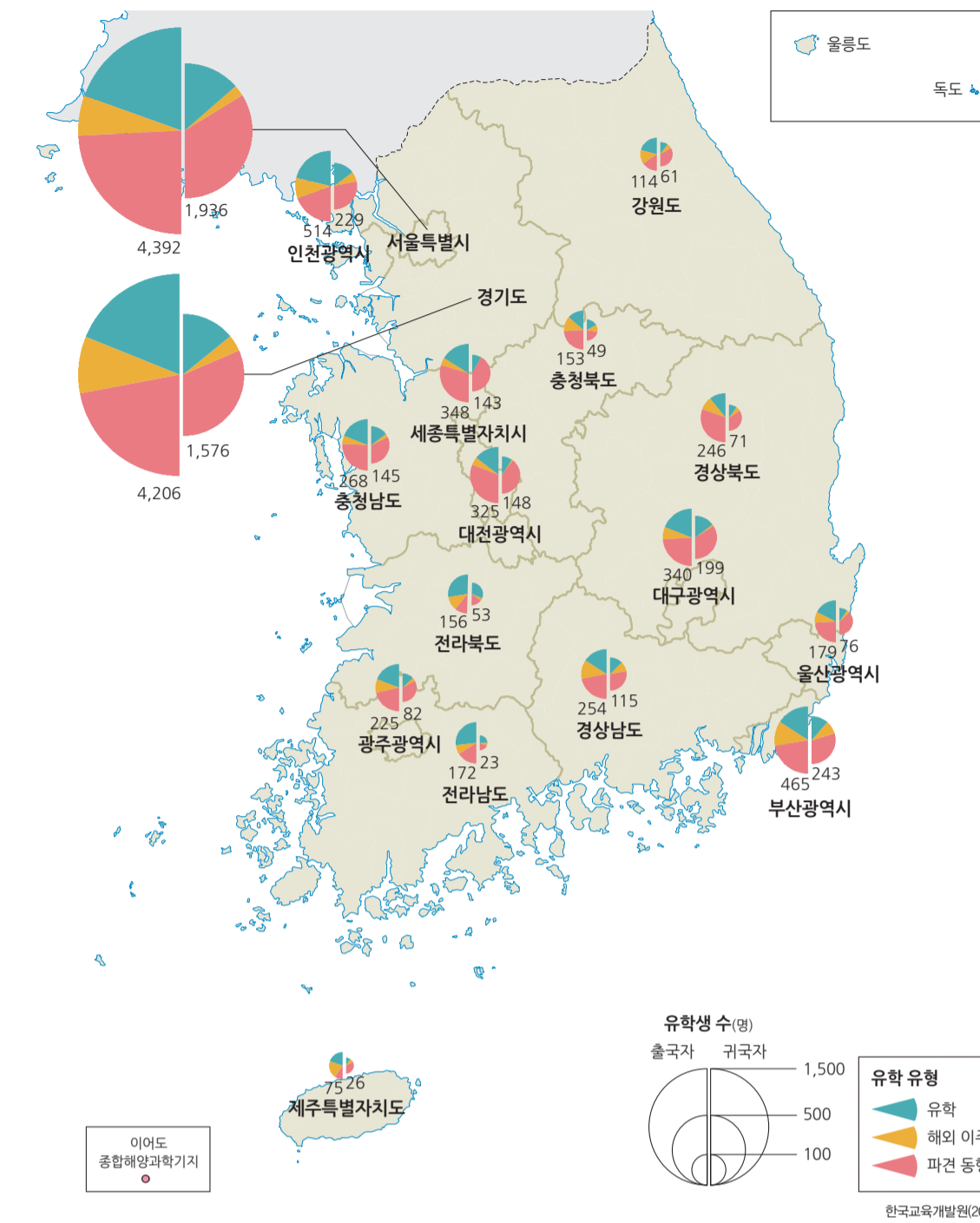
규모별 유치원 수(2020년)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2020년)



초등학생 국외 유학(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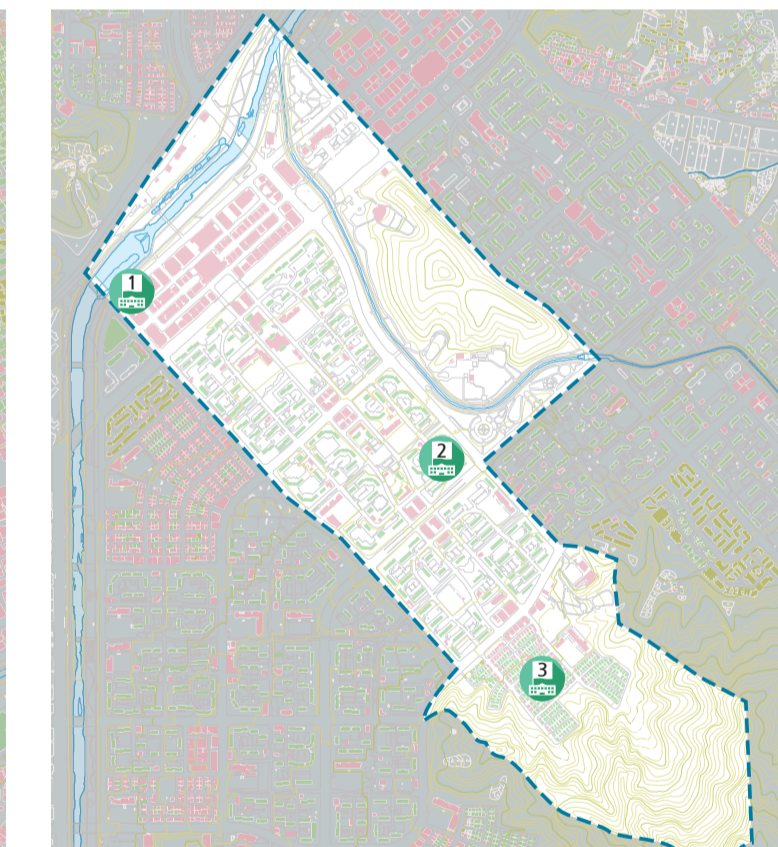


구도심과 신도시 초등학교 입지 및 인구 피라미드(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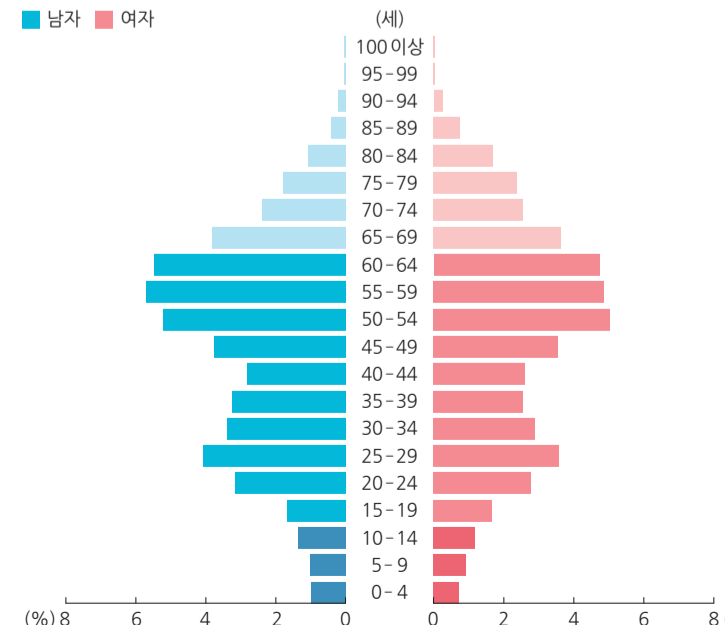
구도심의 초등학교 입지(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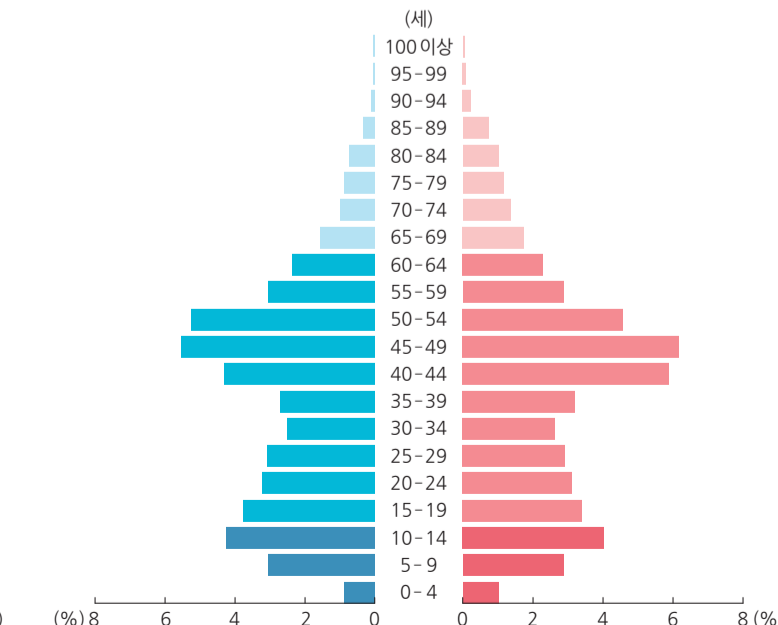
신도시의 초등학교 입지(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남녀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남녀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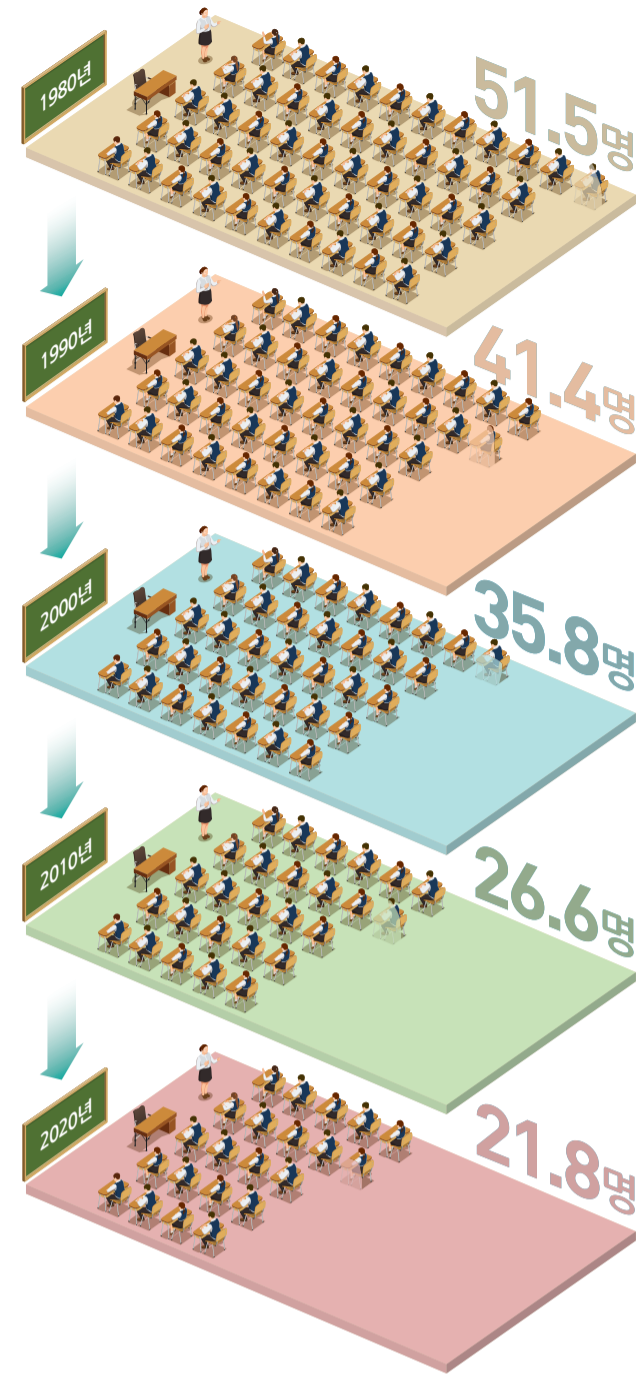


이민자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과 외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아동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은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농촌 지역에도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생이 국외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이민, 부모의 국외 파견, 조기 유학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입지는 학생의 통학권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생활권,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등과 관련이 깊어 한국의 도시 및 농촌의 공간 구조를 살펴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입지를 보면 전통적인 구도심의 초등학교는 도시 발달의 초기 단계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교외화로 인한 학생 인구의 감소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반면 신도시, 택지 개발 등으로 계획적으로 조성된 아파트 위주의 주거 지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입지가 도시 계획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 단지 특성상 몇 개의 단지가 하나의 초등학교를 공유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가 매우 짧고 이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규 주택 단지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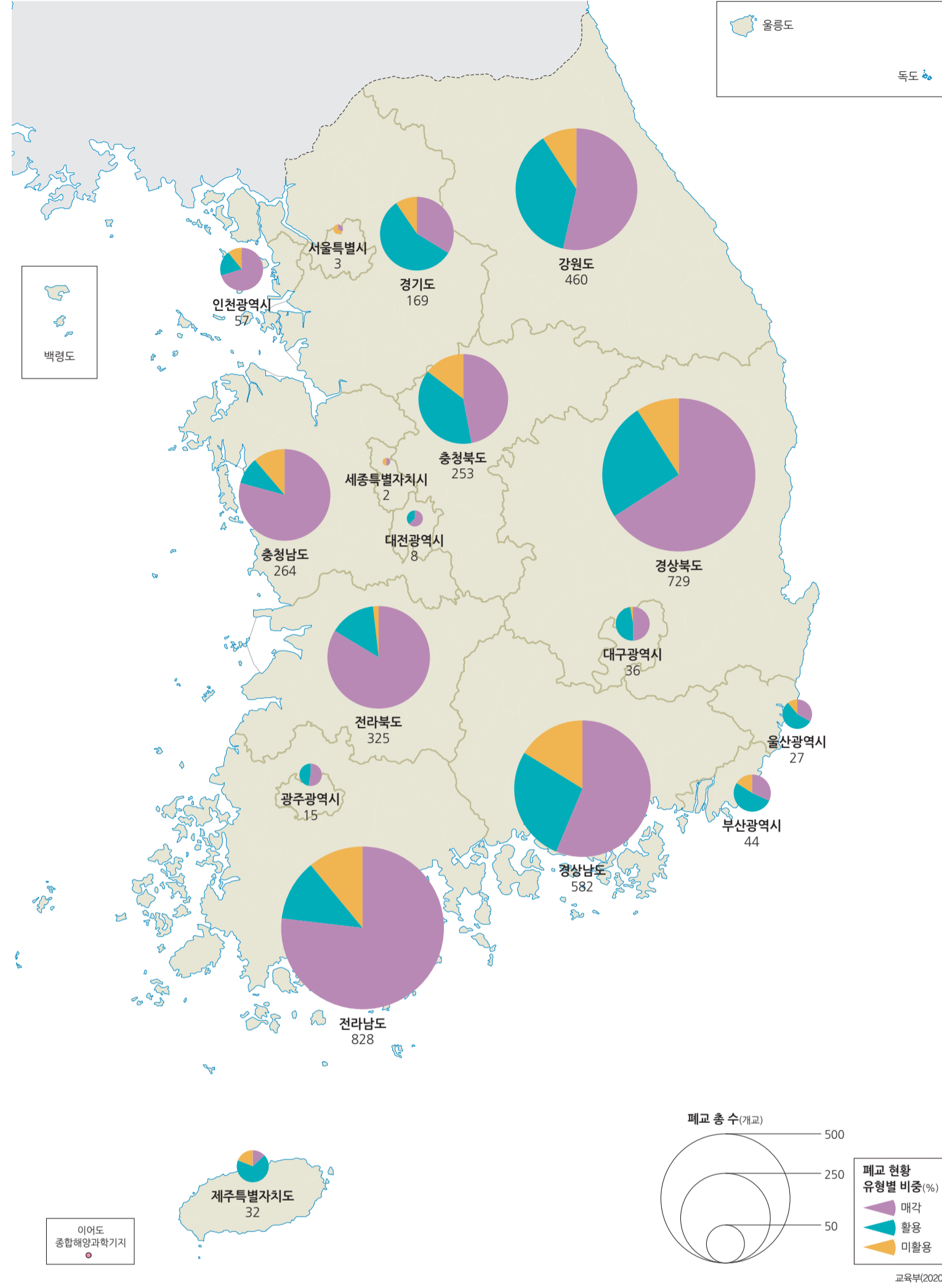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지도에서 사제로 제시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었고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이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1960~1970년대에 많은 학교가 신설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 인구의 감소로 분교가 늘어나고 결국은 농촌 중심지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폐교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폐교 현상은 비단 농촌의 문제만은 아니며 최근에는 대도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폐교 중 일부는 매각되거나 시·도 교육청 재산으로서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소득 증대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변화(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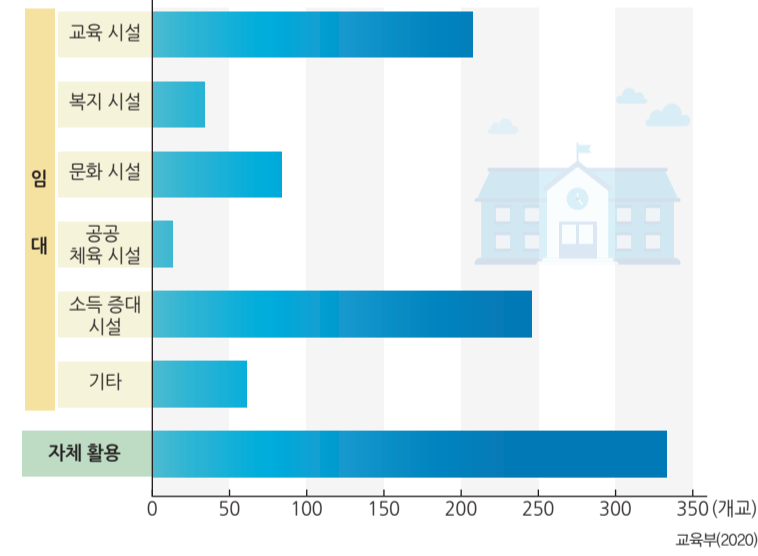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20)

폐교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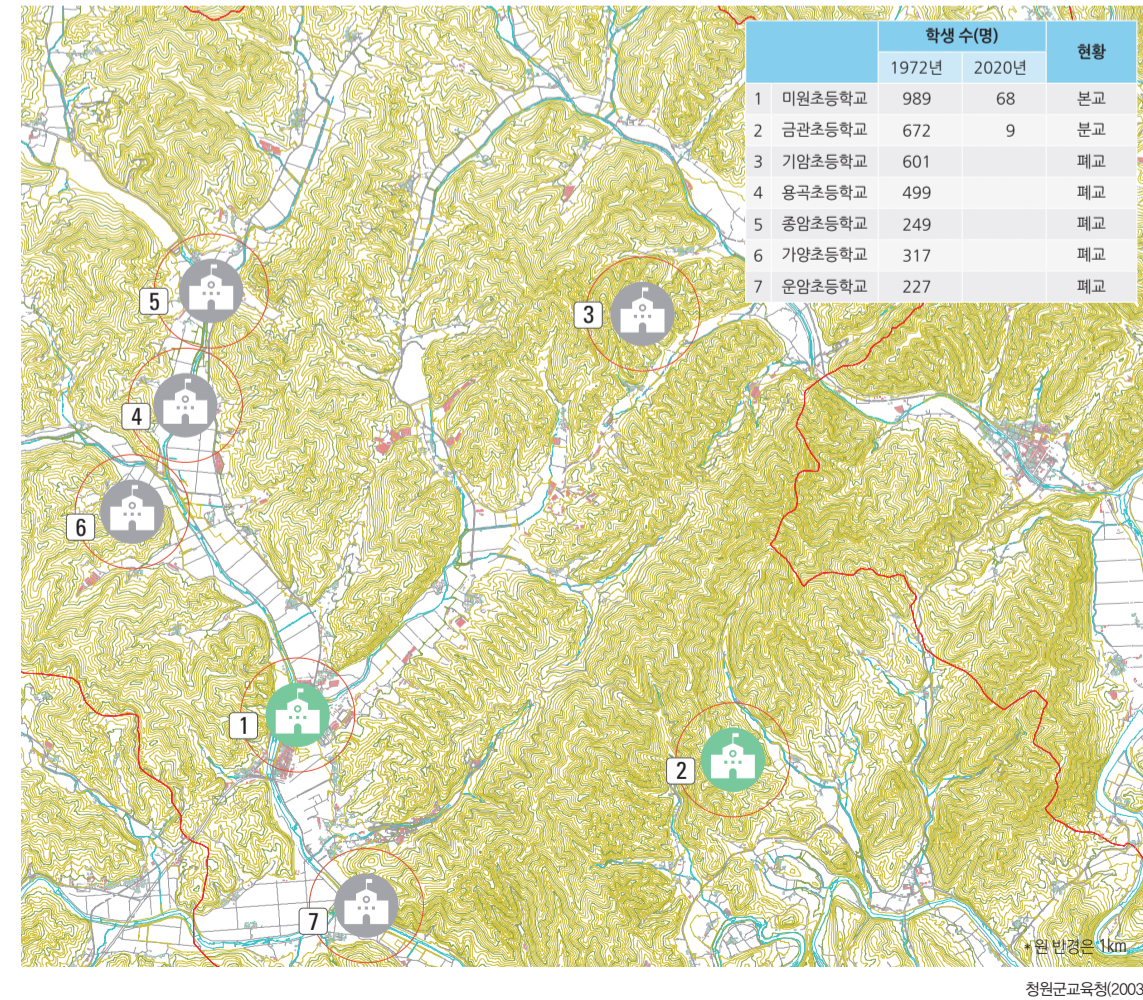


폐교 활용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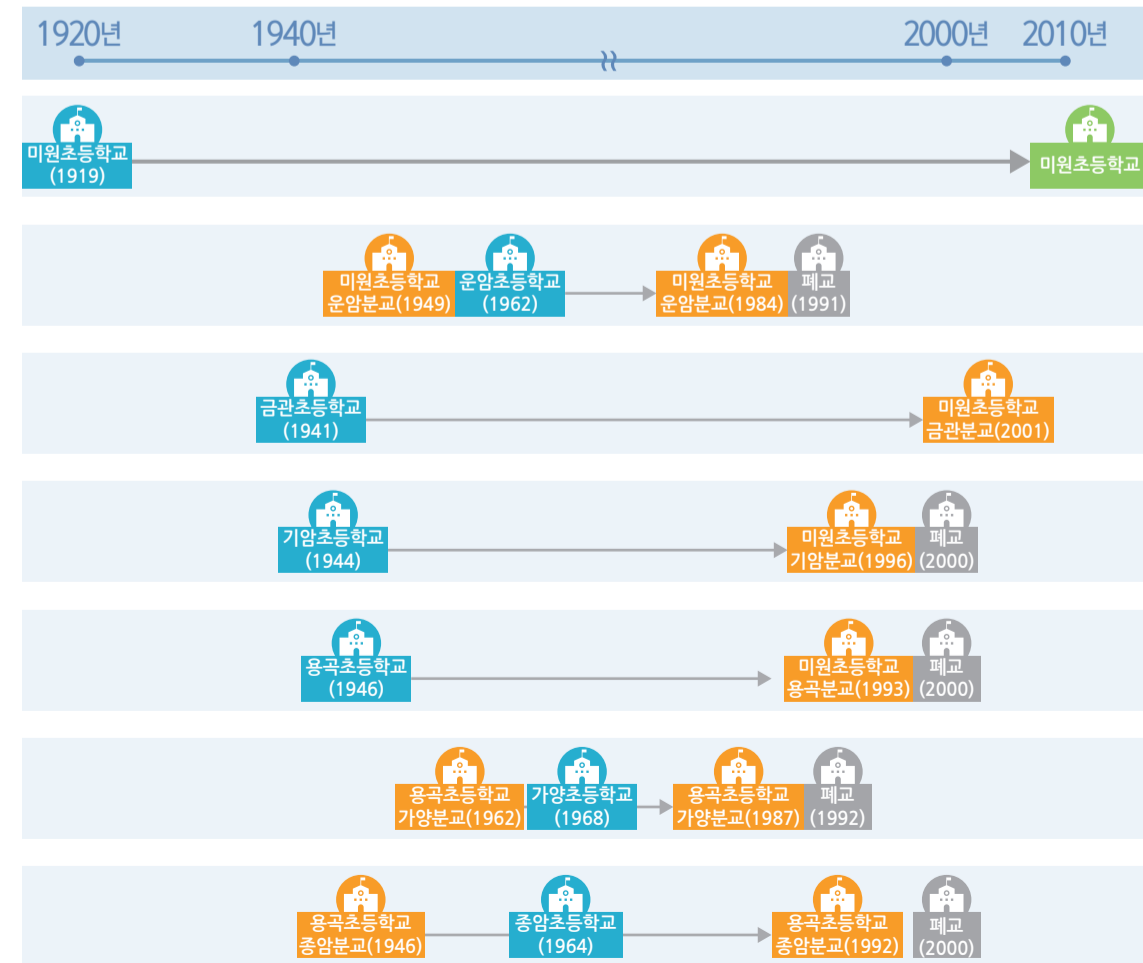
교육부(2020)

초등학교 폐교(충북 청주시 미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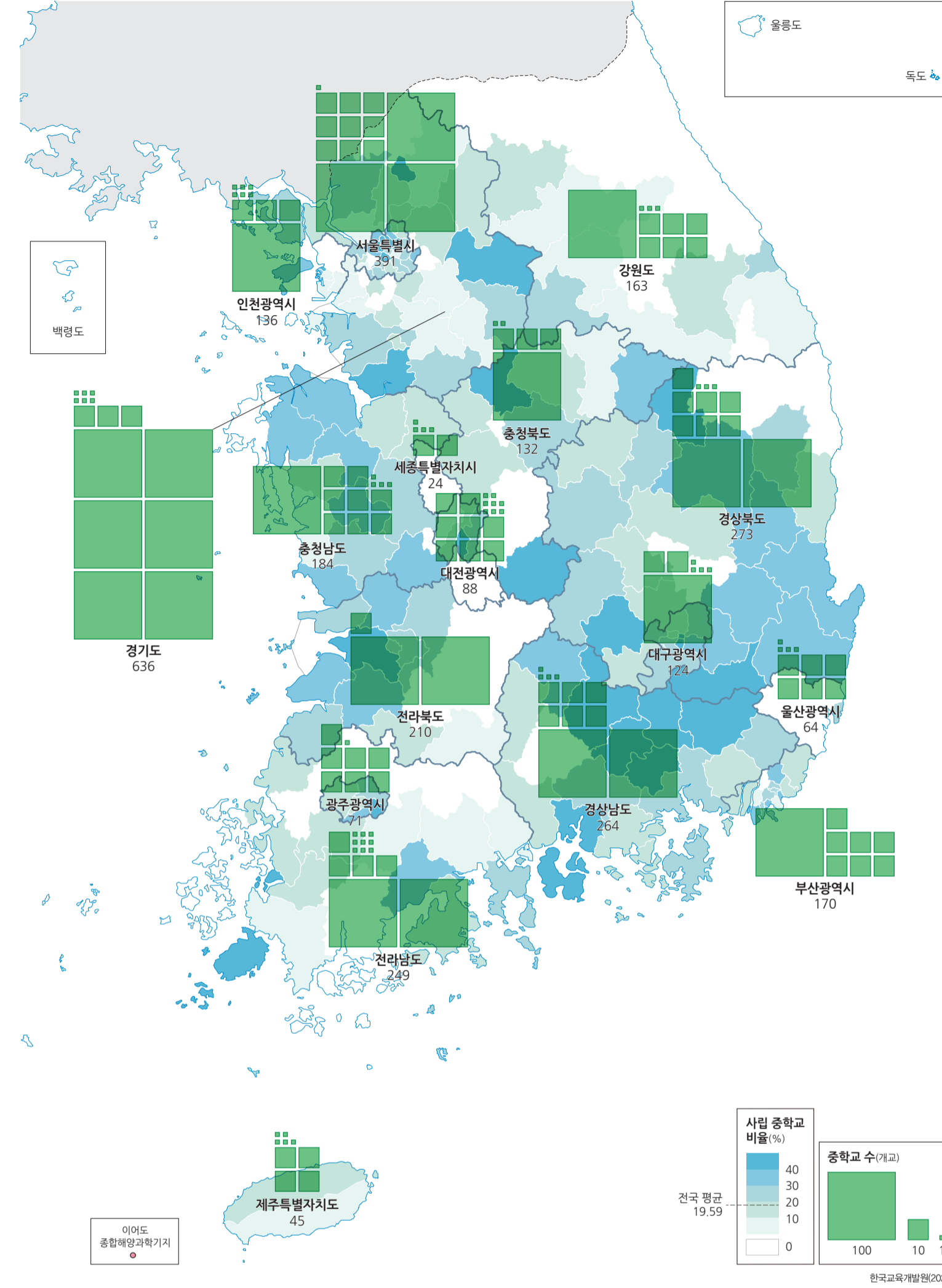
청원군교육청(2023)

초등학교 개교와 폐교 사례(충북 청주시 미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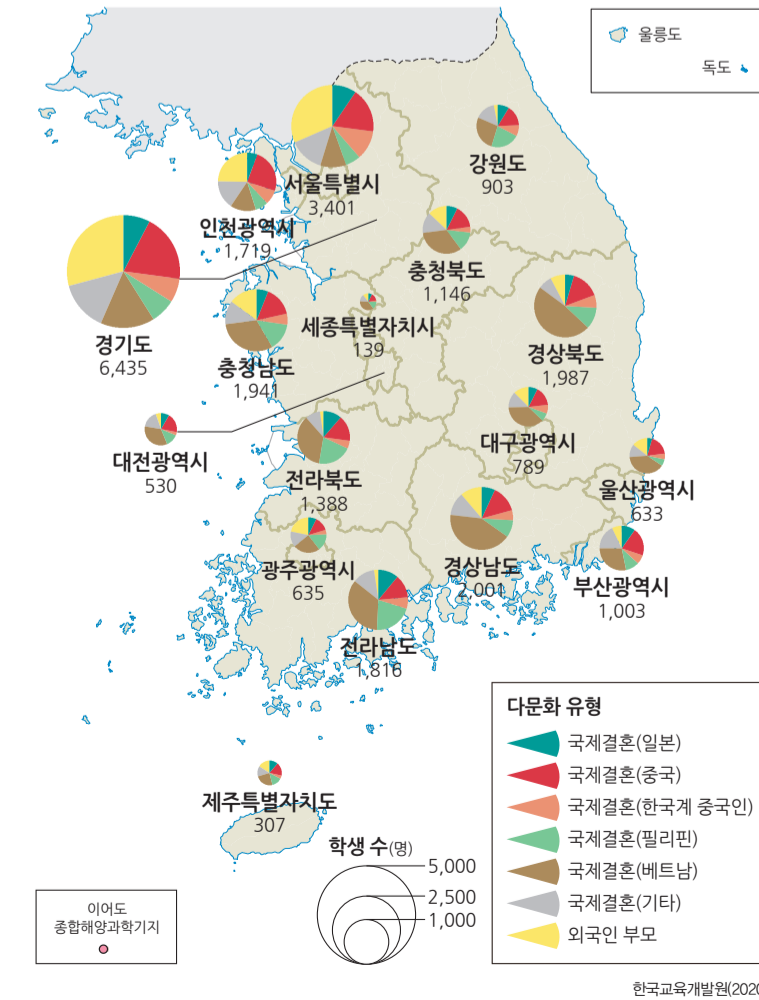


중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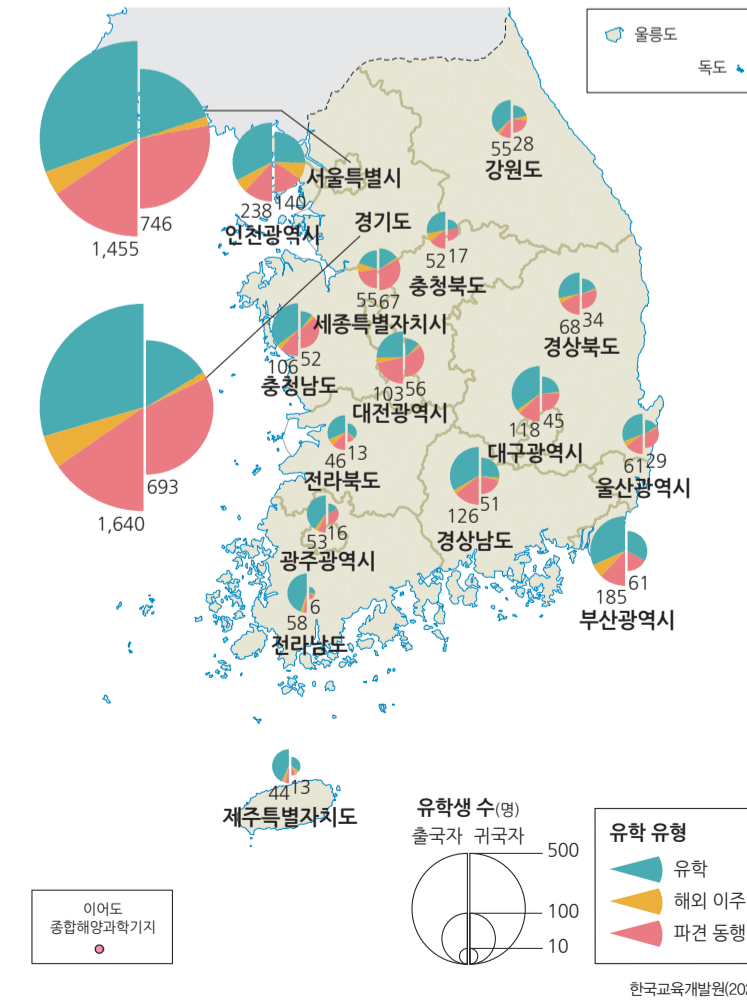
중학교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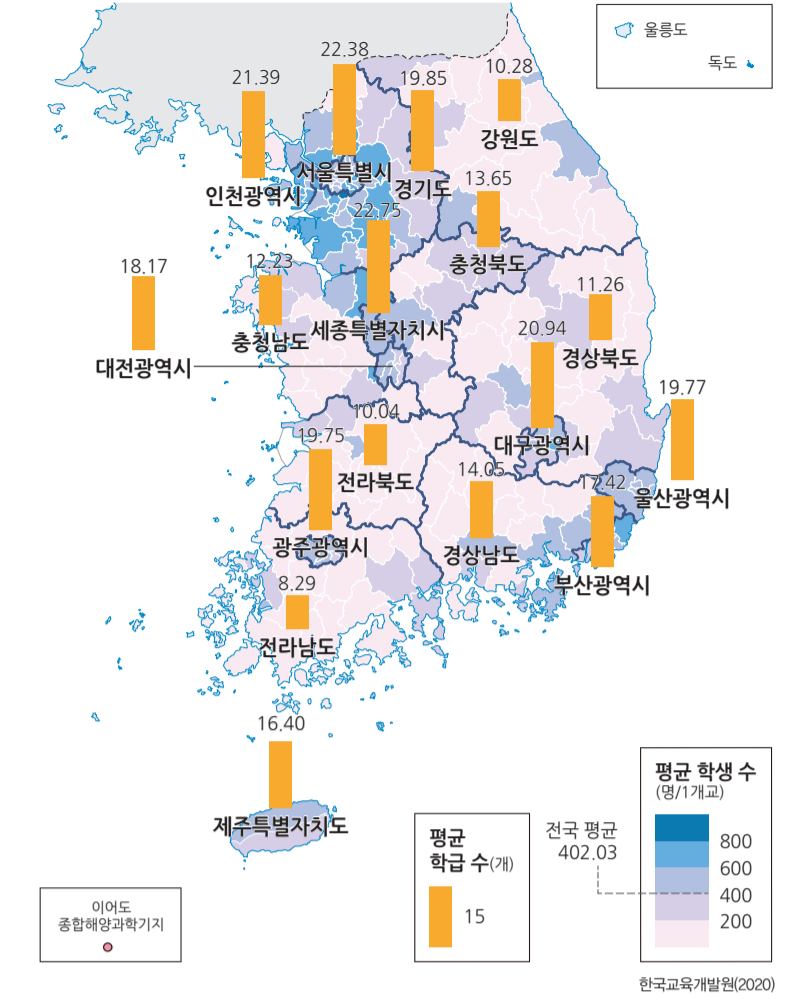
중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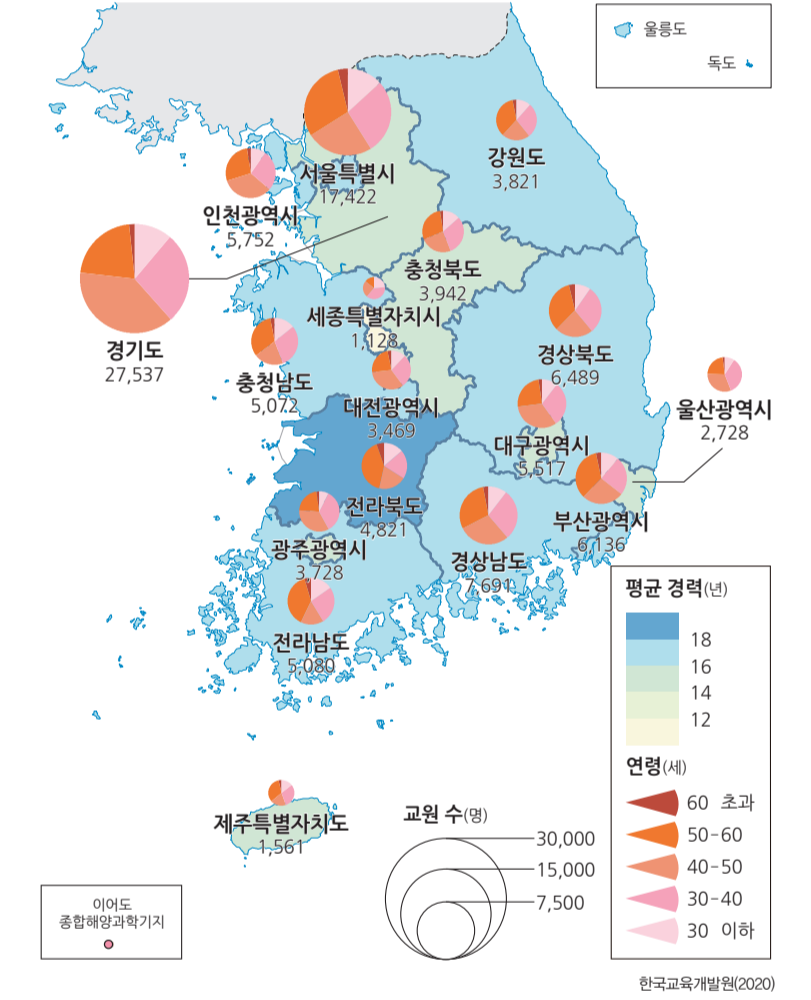
중학교 국외 유학(2020년)



중학교의 지역별 규모(2020년)



중학교 교원의 연령과 경력(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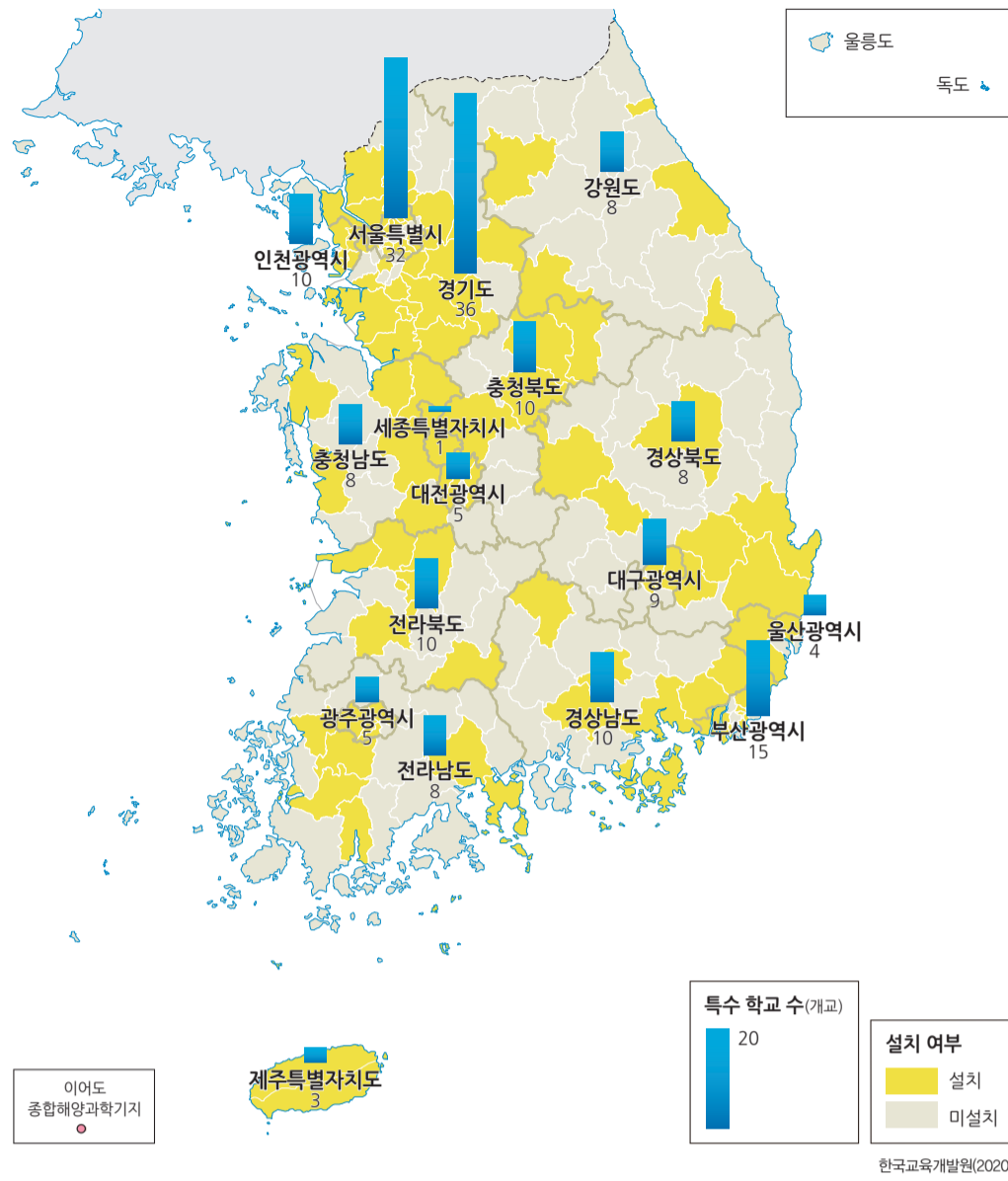


중학교는 설립 주체별로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국·공립의 비율이 80% 정도로 높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국·공립 중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규모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경우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적다. 한편 중학교 교원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학생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신규 교원의 채용이 지속되어 30-40대 교원의 비율이 높지만 다른 지역은 50-60대 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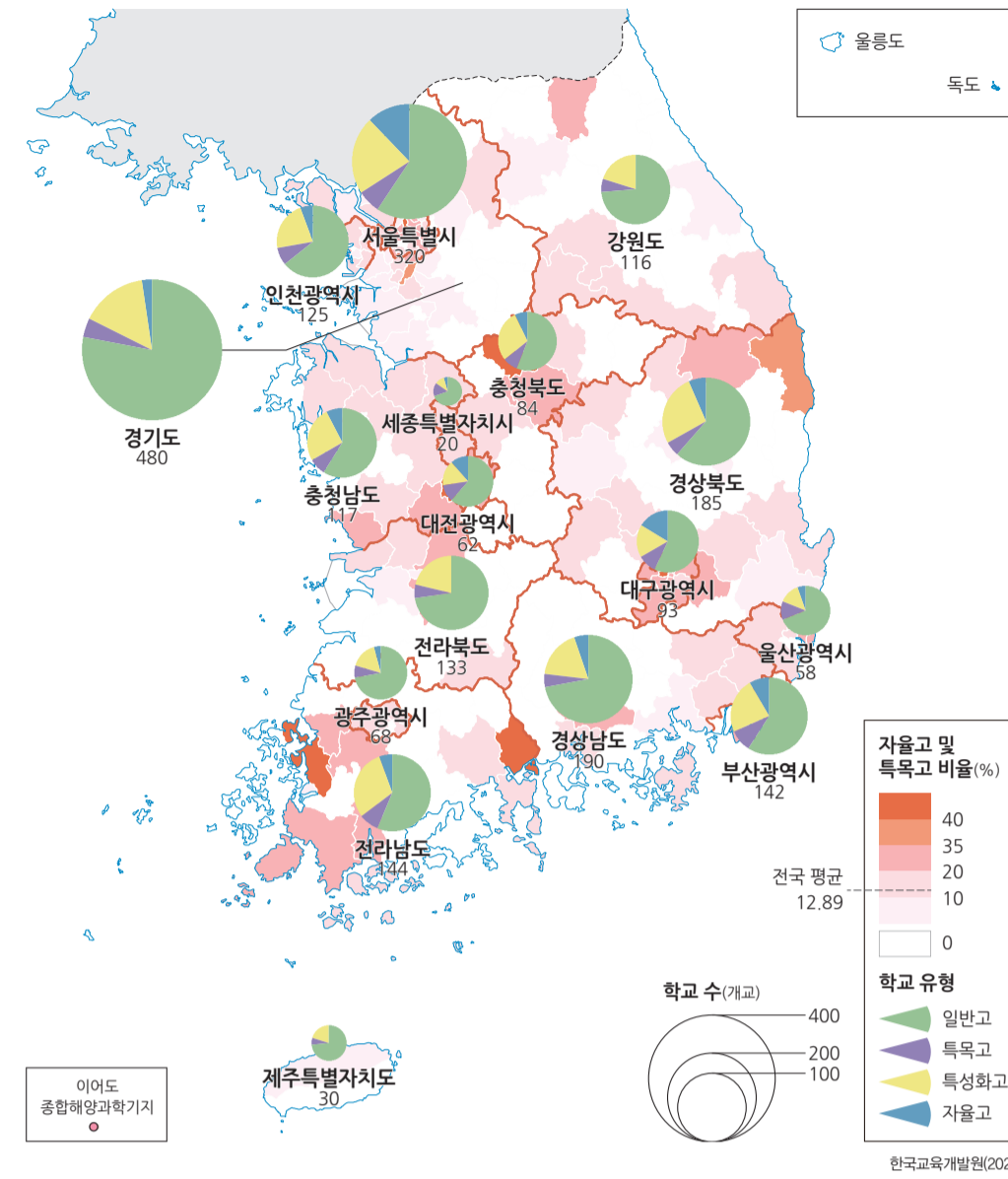
중학교에서도 다문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부모의 학생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등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많다.

중학교 과정에서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보다 출국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학 출국 및 귀국 학생이 많으며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많은 학생이 조기 유학을 떠나거나 유학에서 귀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 출국의 경우 유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모와 동행, 이민으로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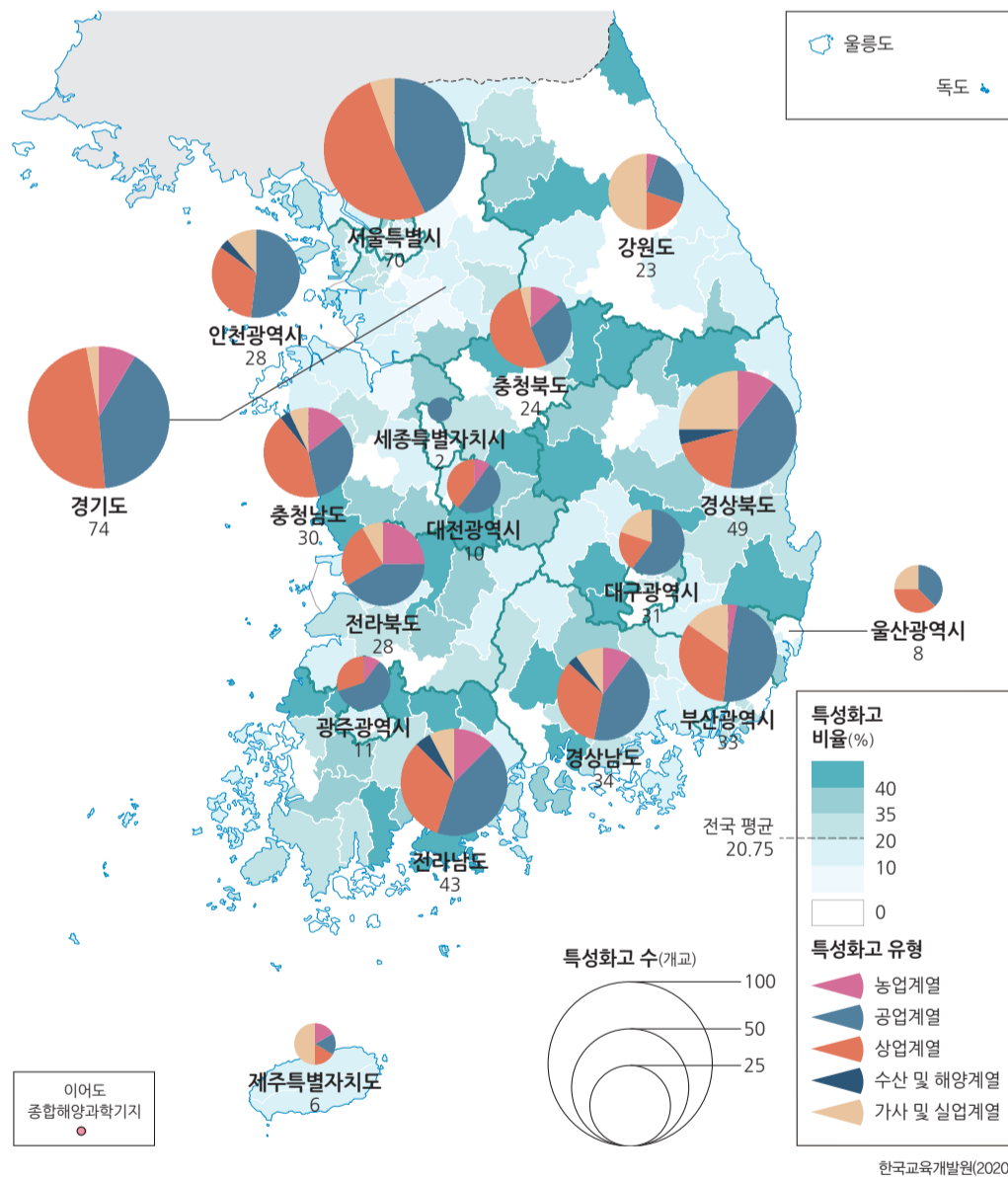
특수학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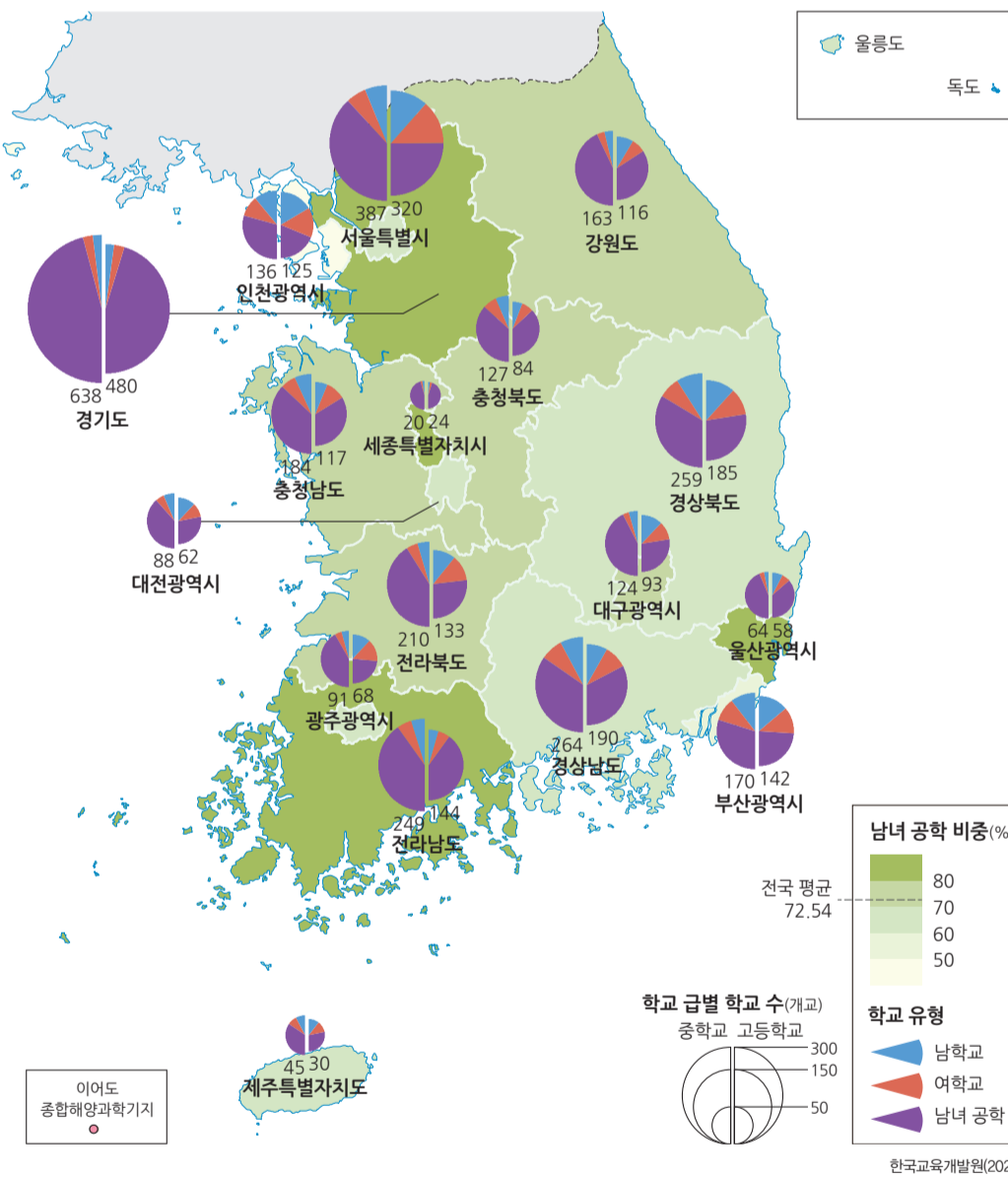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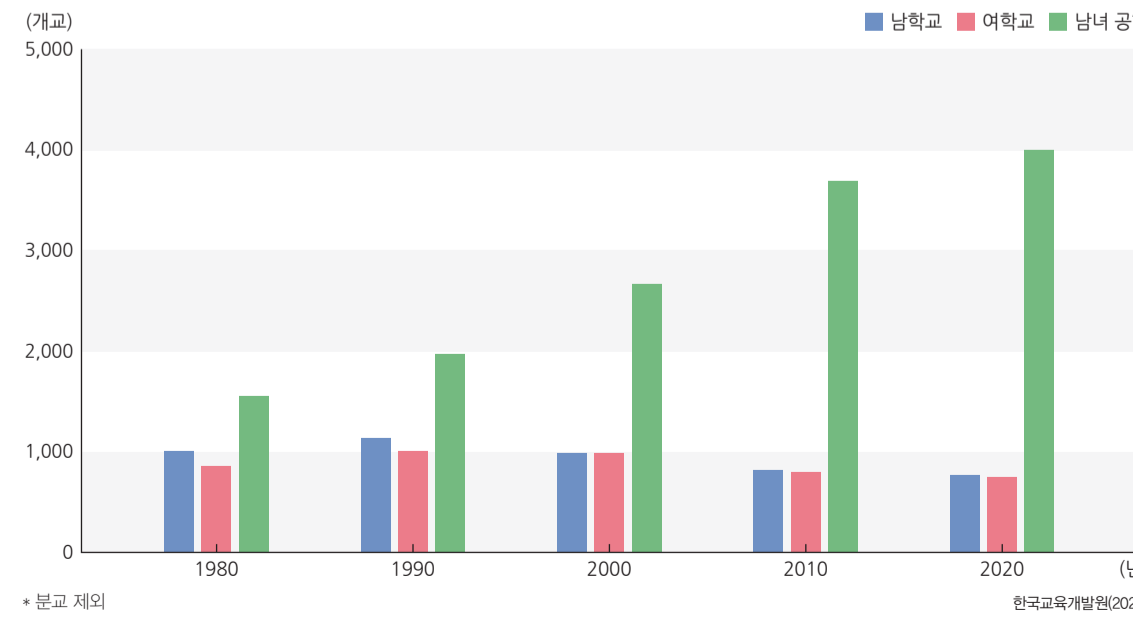
직업교육 특성화고(2020년)



남녀 공학 중·고등학교 분포(2020년)



남녀 공학 중·고등학교 추이(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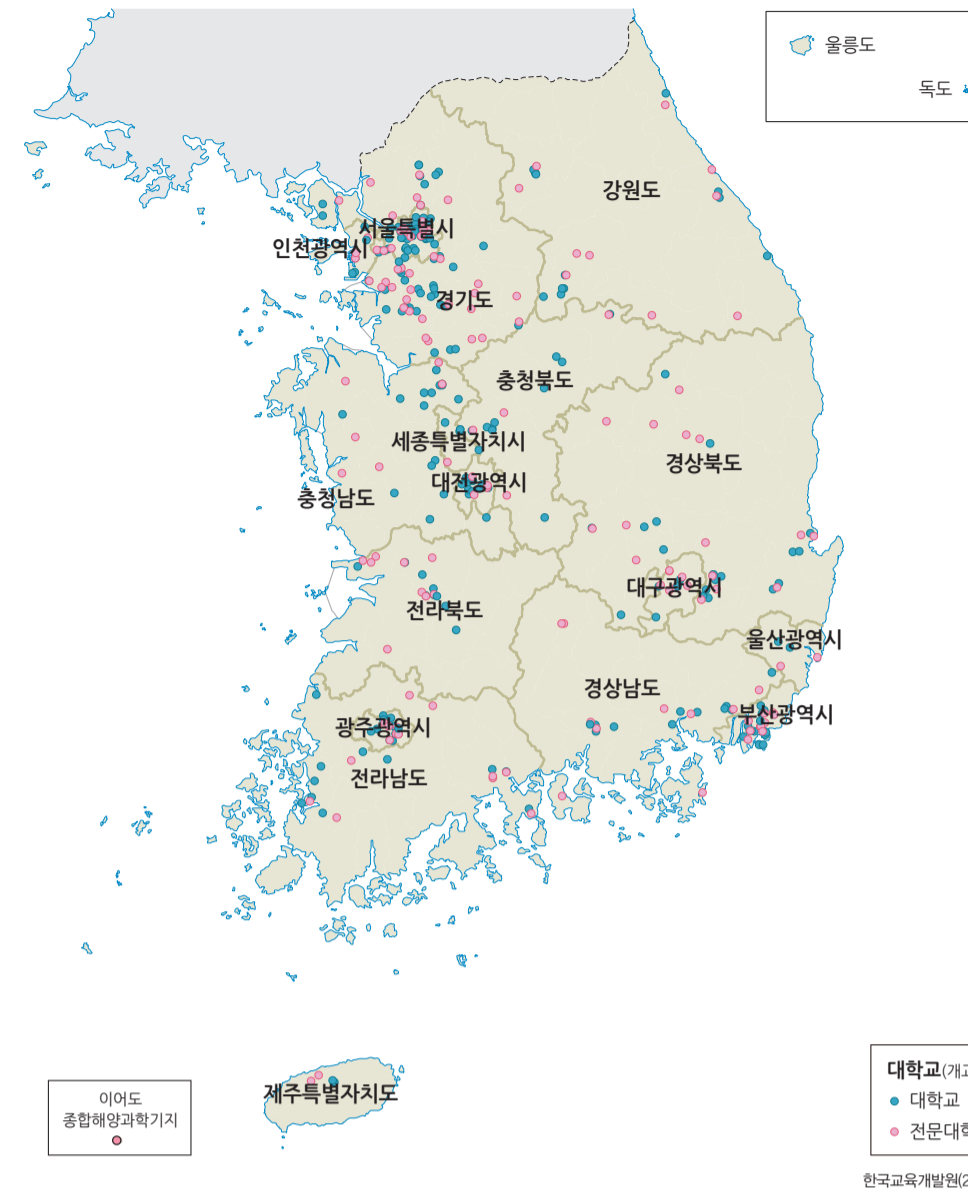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초·중 및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학교는 대도시와 일부 중소 도시에만 설립되어 있고 농촌 지역에는 없는 곳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뉜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외국어와 과학 분야 등의 특화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고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비도시 지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비율이 높으며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등 지역 내의 주요 직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많은 한국의 중·고등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분리된 단성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까지 이어져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점차 남학교와 여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고 시도시나 택지 개발로 새로이 조성된 주거 지구에 남녀 공학이 개교하게 되면서 2000년대 이후 전체 학교 수에서 남녀 공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남녀 공학의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특히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도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인천광역시에서는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고등 교육

대학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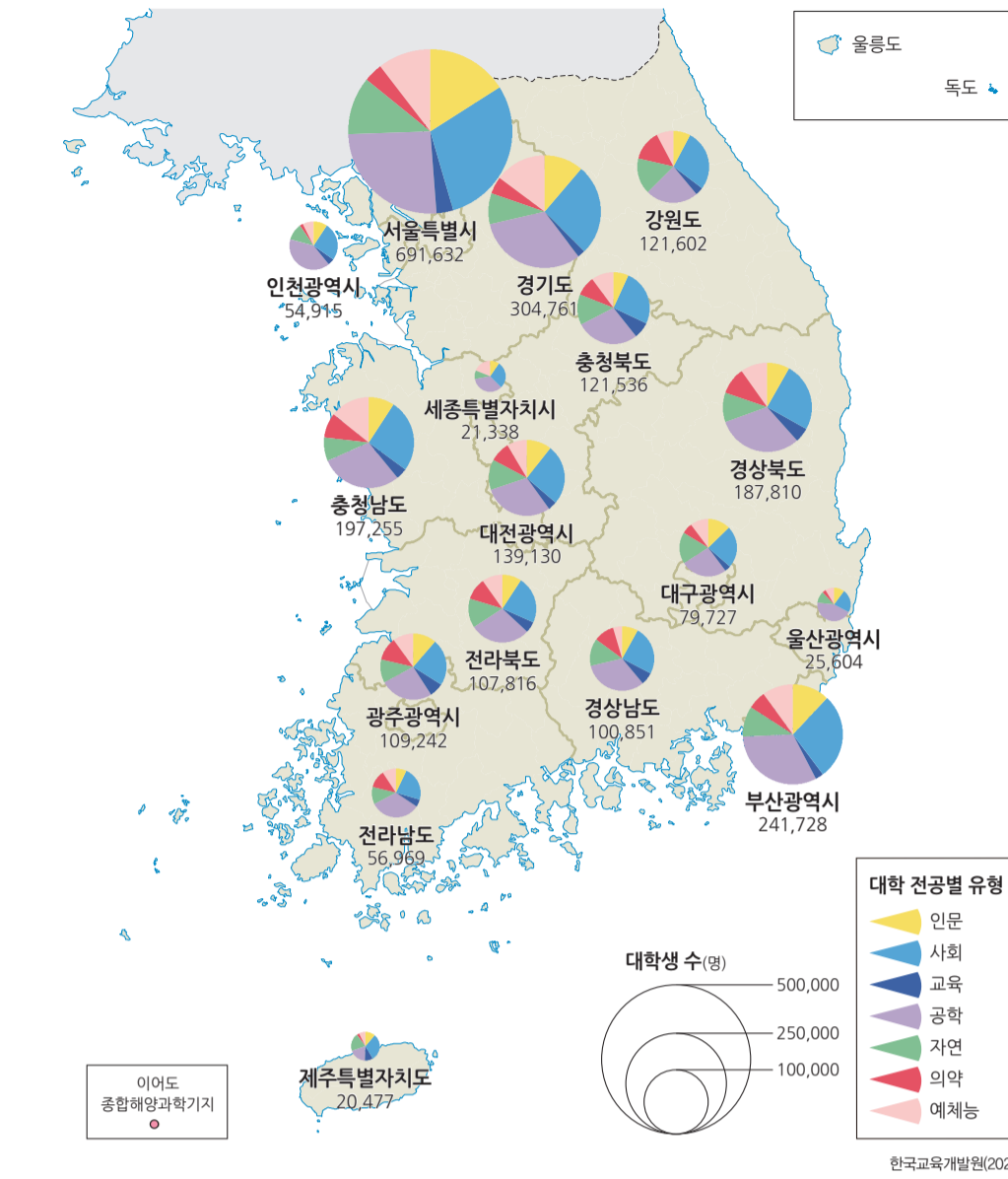
원경대학의 분포(2020년)



대학은 크게 국립 대학과 사립 대학으로 대별되며 각 도의 중심 도시에는 국립 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사립 대학은 다양한 설립 주체들이 고유한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다. 일부 사학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민족 교육 기관을 계승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사립 대학의 수는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의 증가와 함께 대학 진학률도 높아져 현재 한국의 대학교 진학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인력을 배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높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원격대학들은 대부분의 강의와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일반 대학보다 시간-공간적 제약이 덜하다. 그러나 이들 대학 역시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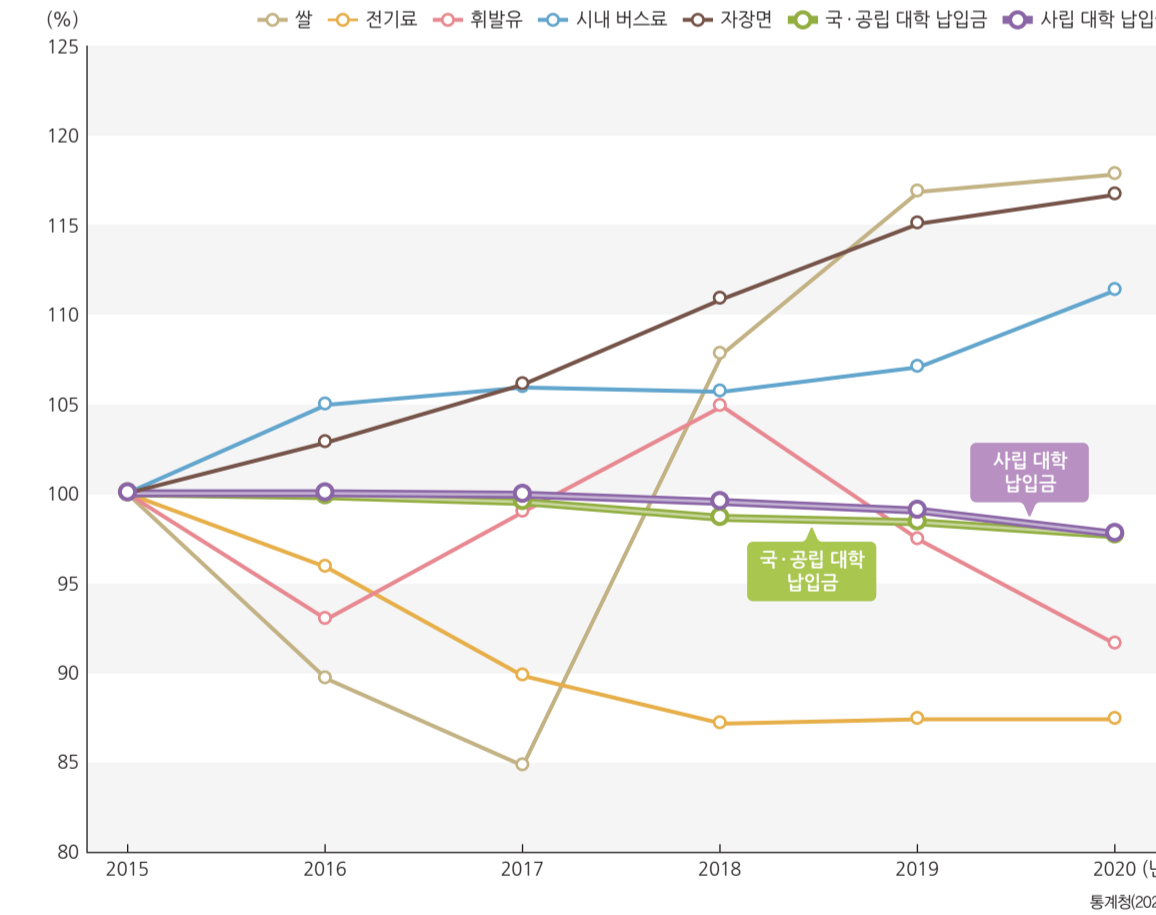
고등 교육비에서 민간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대학 등록금 수준, 국가의 장학 지원, 대학의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이 고등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학교의 전공은 크게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으로 나뉘며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공학 계열 재적 학생이 약 55만 명, 사회 계열 재적 학생이 약 50만 명 정도이며 인문과 자연, 예체능 계열 재적 학생의 수도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전공별 학생 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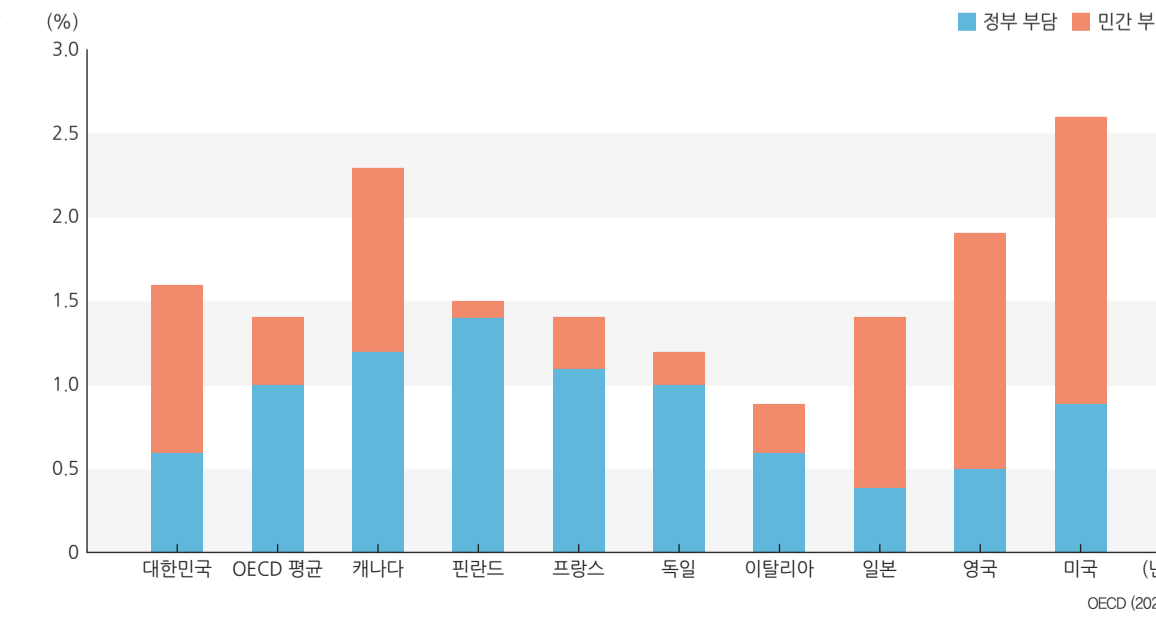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큰 변화를 겪어왔다. 대학 수와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종류는 매우 많은데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초·중·고교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대학교와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이 운영 중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적 직업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 등의 대학교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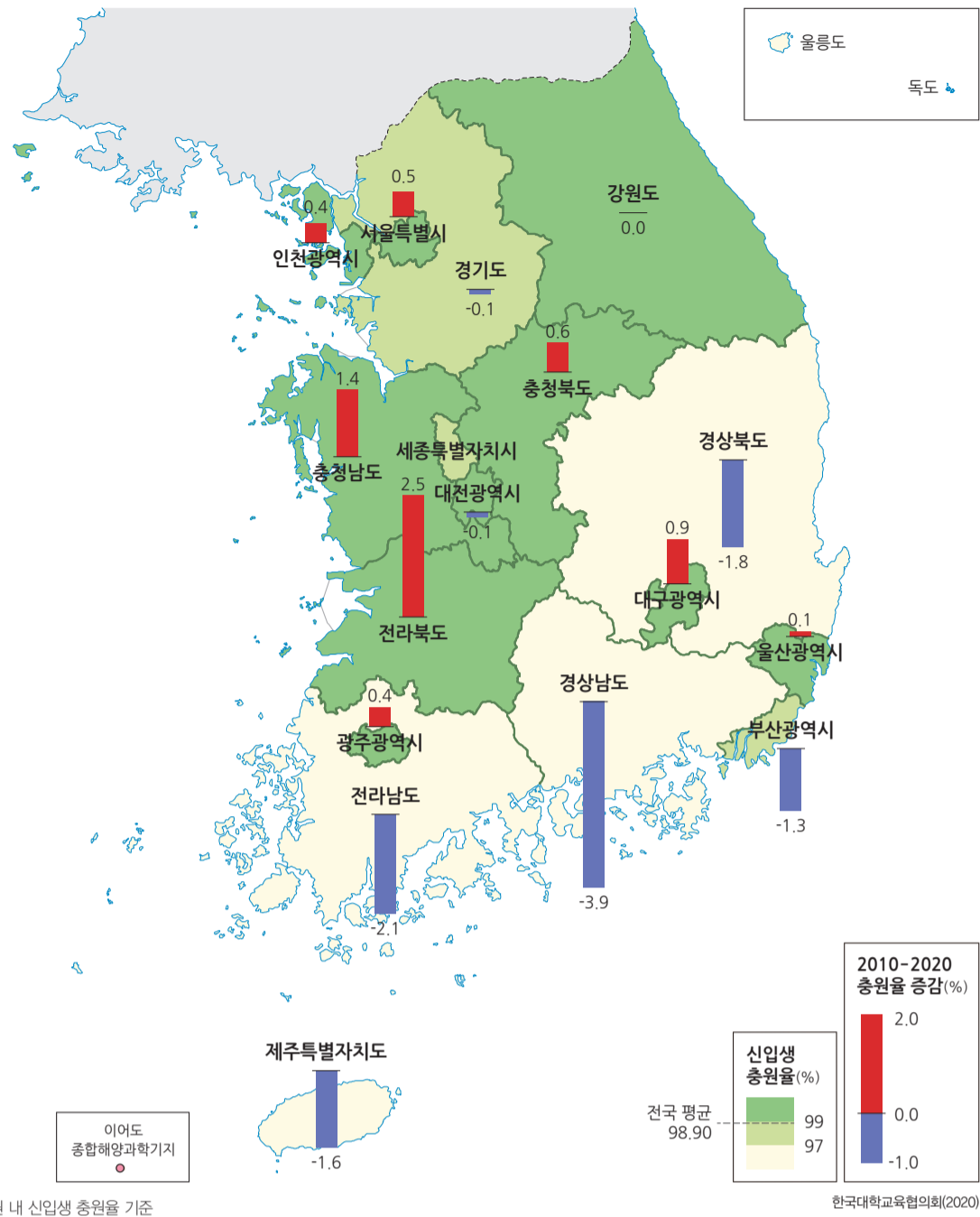
대학 등록금 상대적 증가 추이(201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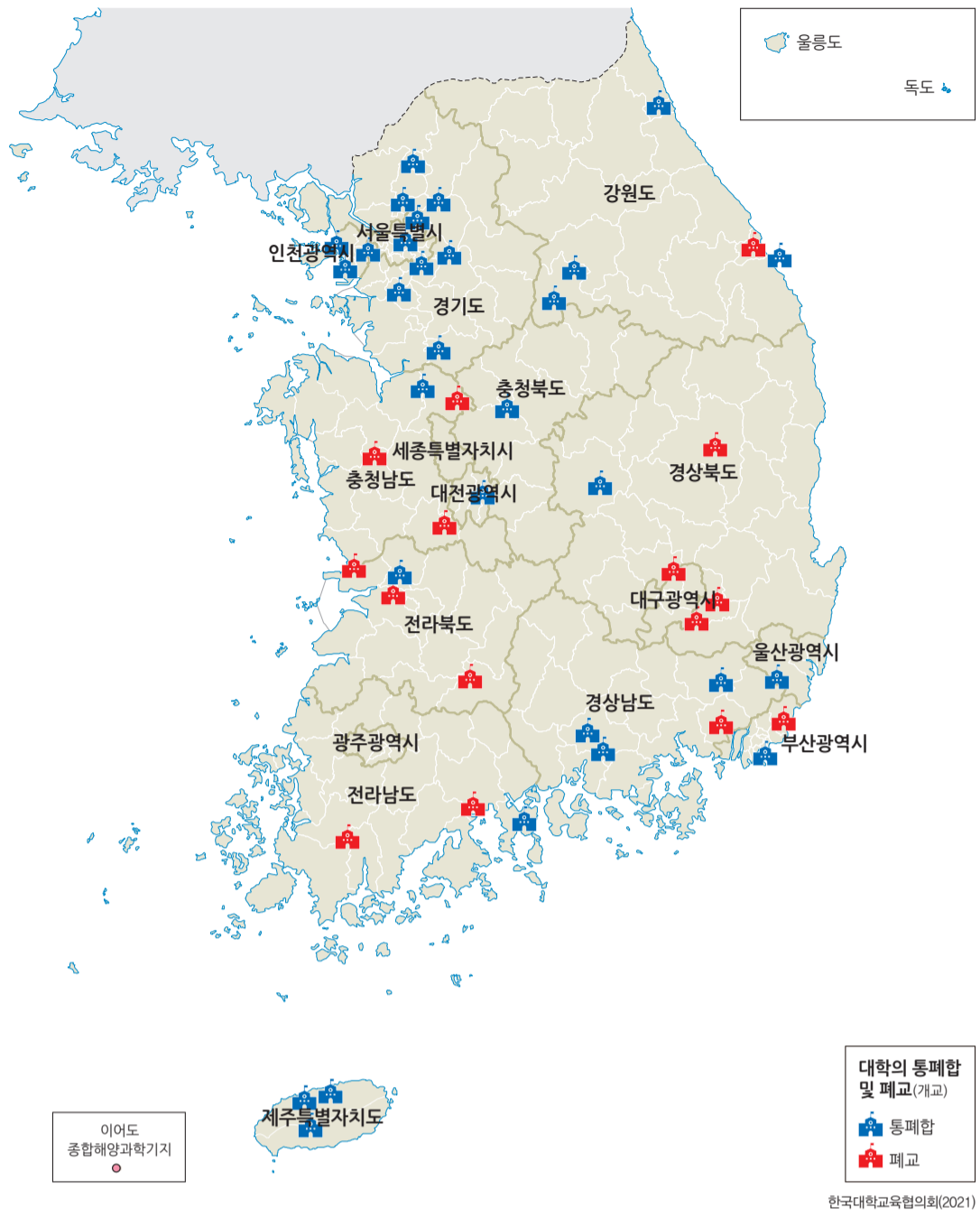
GDP 대비 고등 교육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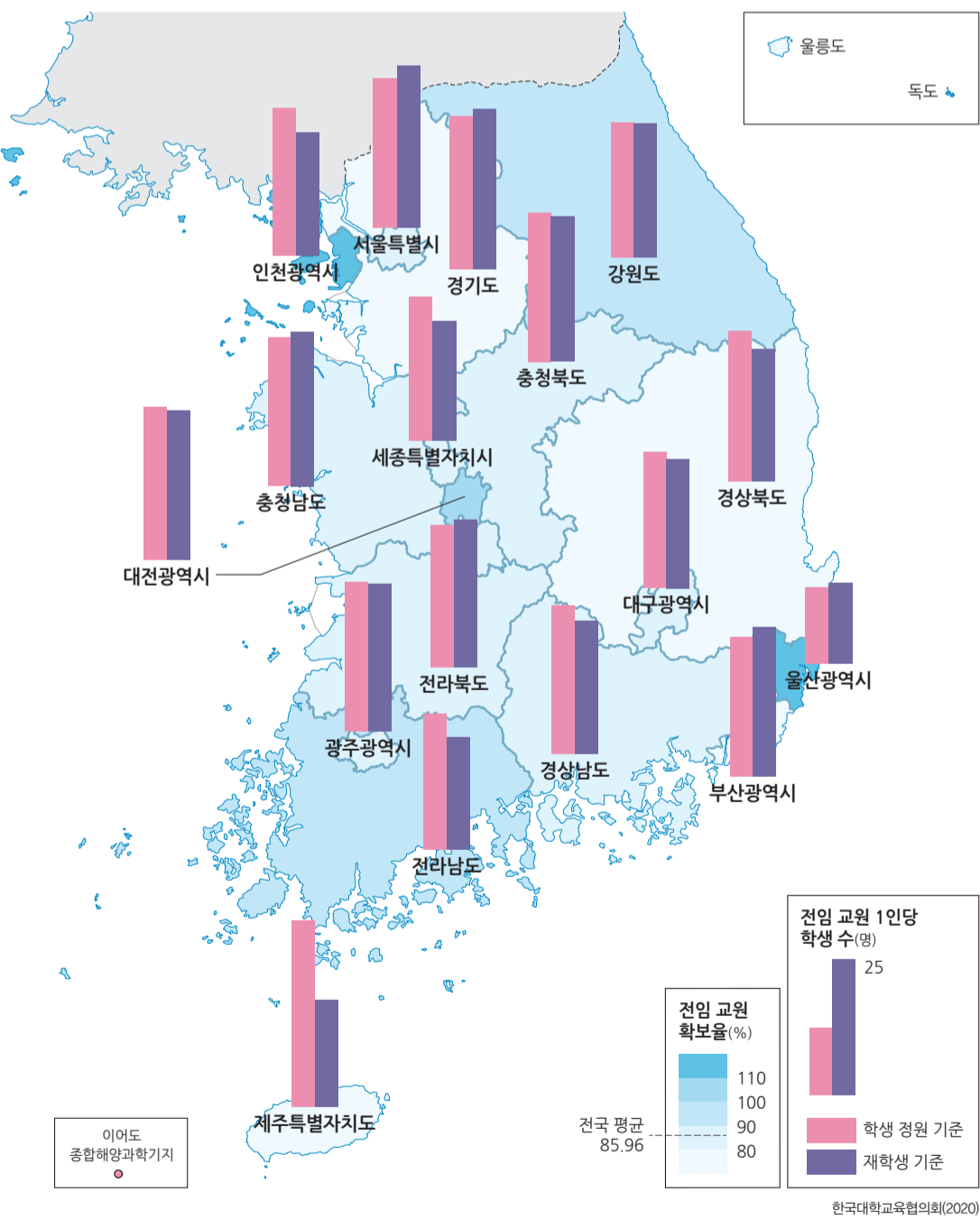
일반대학 신입생 총원 현황(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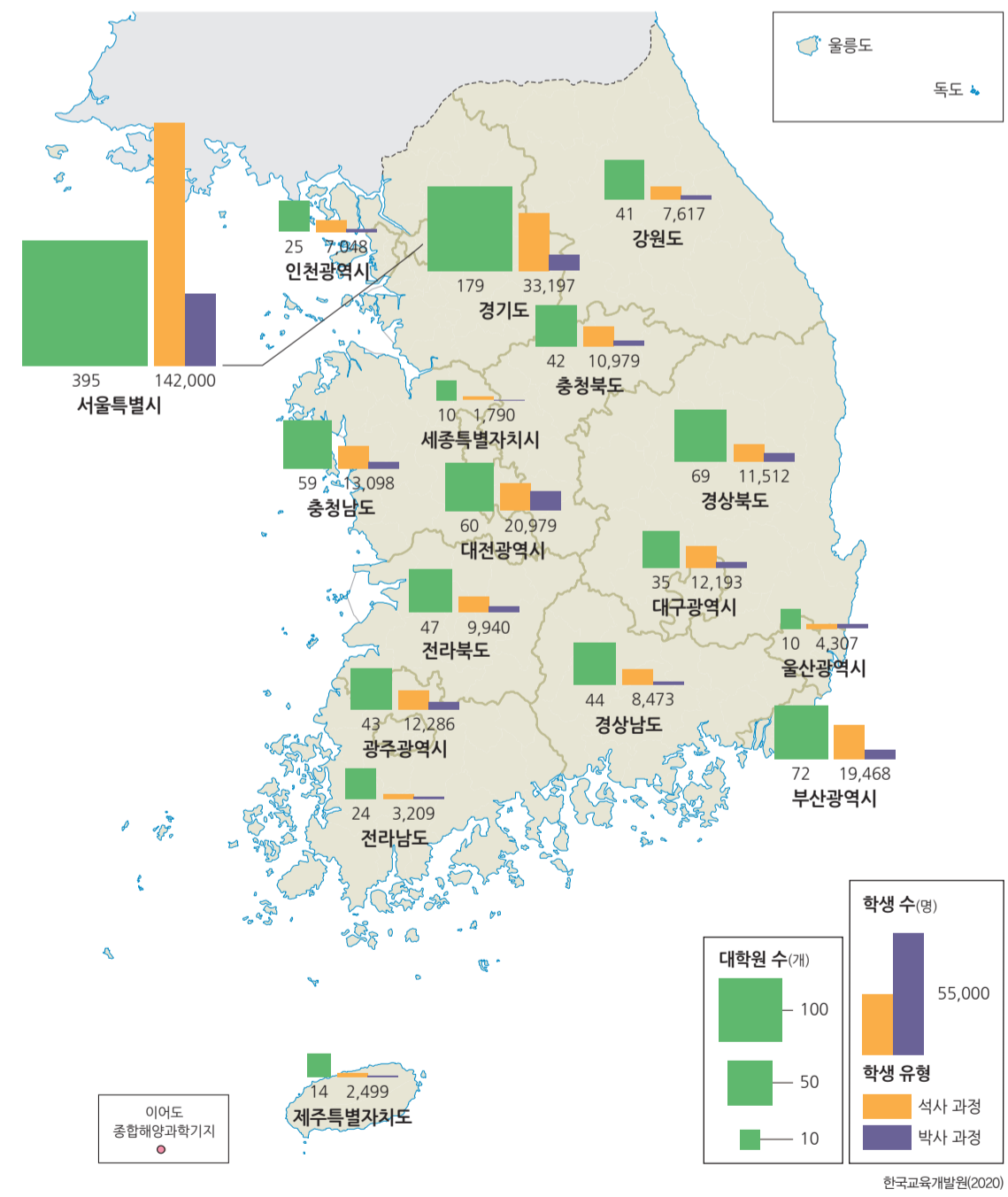
대학의 통폐합 및 폐교(2021년)



대학의 전일 교원 확보율 및 1인당 학생 수(2020년)



대학원의 분포(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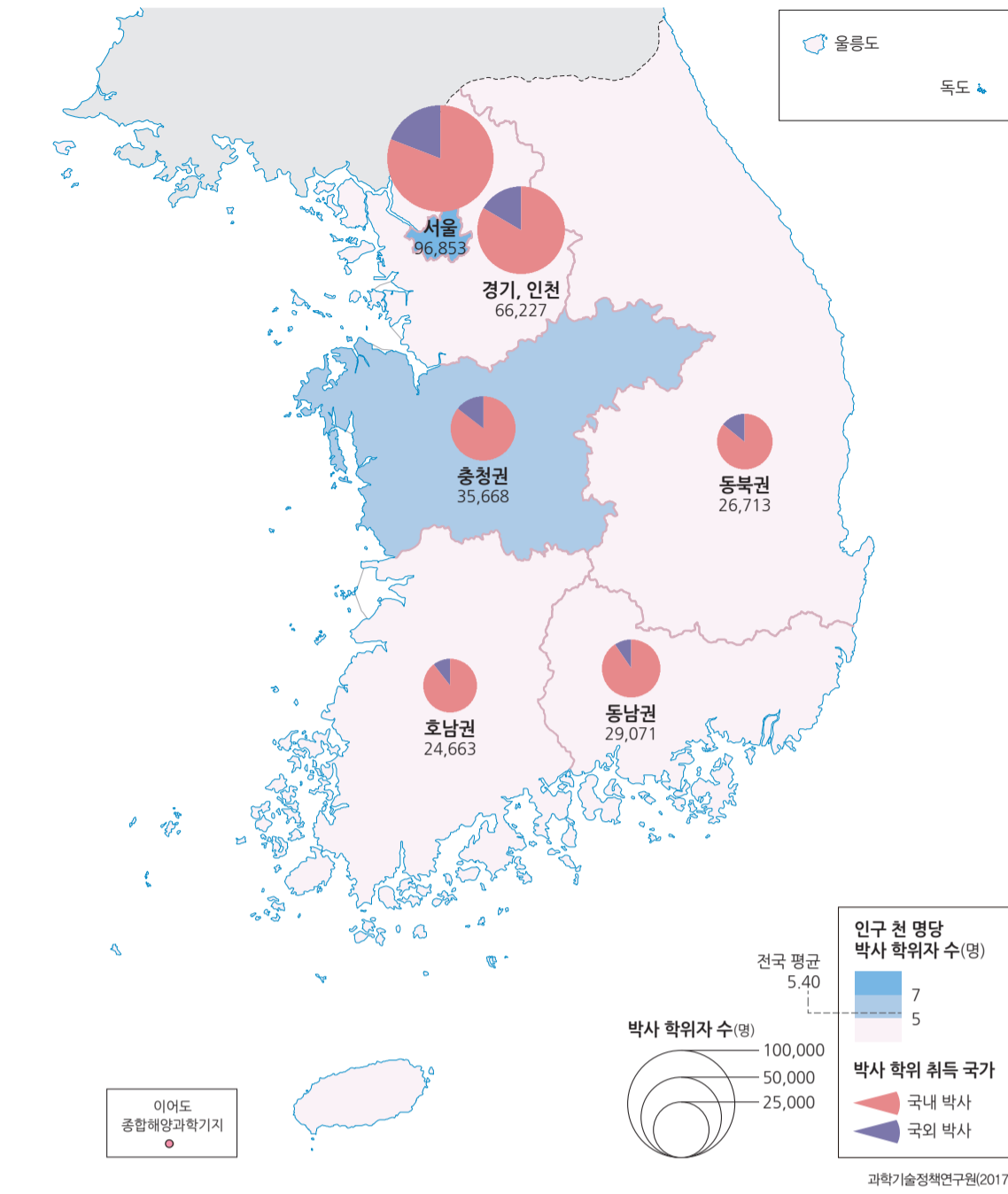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입학자 수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 및 폐교 현상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은 신입생 충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내 모집 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나 전체 고등 교육 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대학의 통·폐합은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과 일반대학 간 또는 일반대학 간 통합에 따른 폐교 유형이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지방 국·공립 대학의 통합도 일어나고 있다.

전일 교원 확보율과 전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대학의 학습 환경과 여건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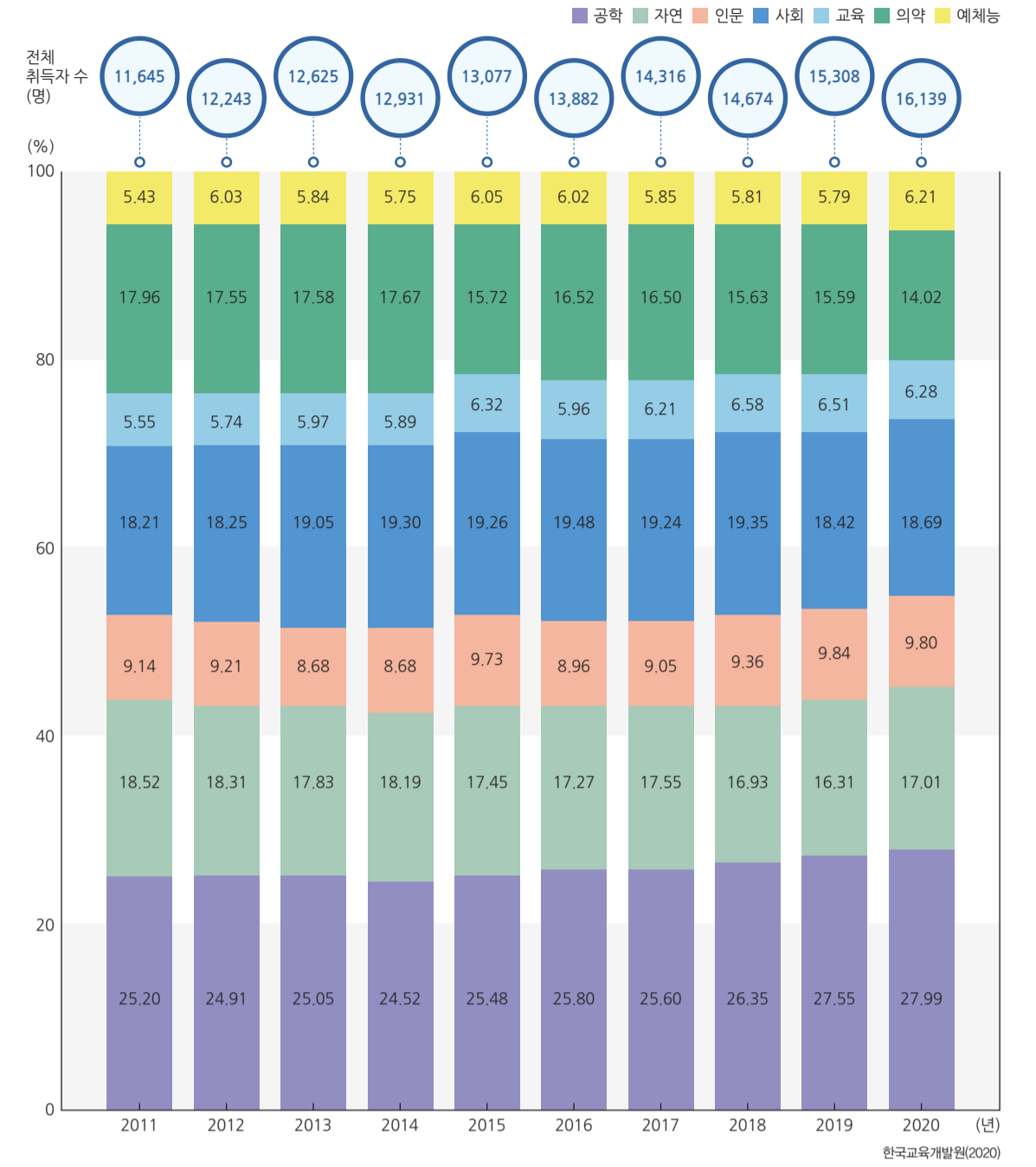
이에 대학은 전일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일 교원 확보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86%로 조사되었고 전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학생 정원 기준 27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일 교원 확보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 특히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교원 법정 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전일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 축소 문제 해결, 재정 확충 등의 이유로 정원의 선별 인원을 유지 및 확대하면서 학생 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간 전일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고등 교육의 발달과 전문 지식의 습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대학원이 설립되었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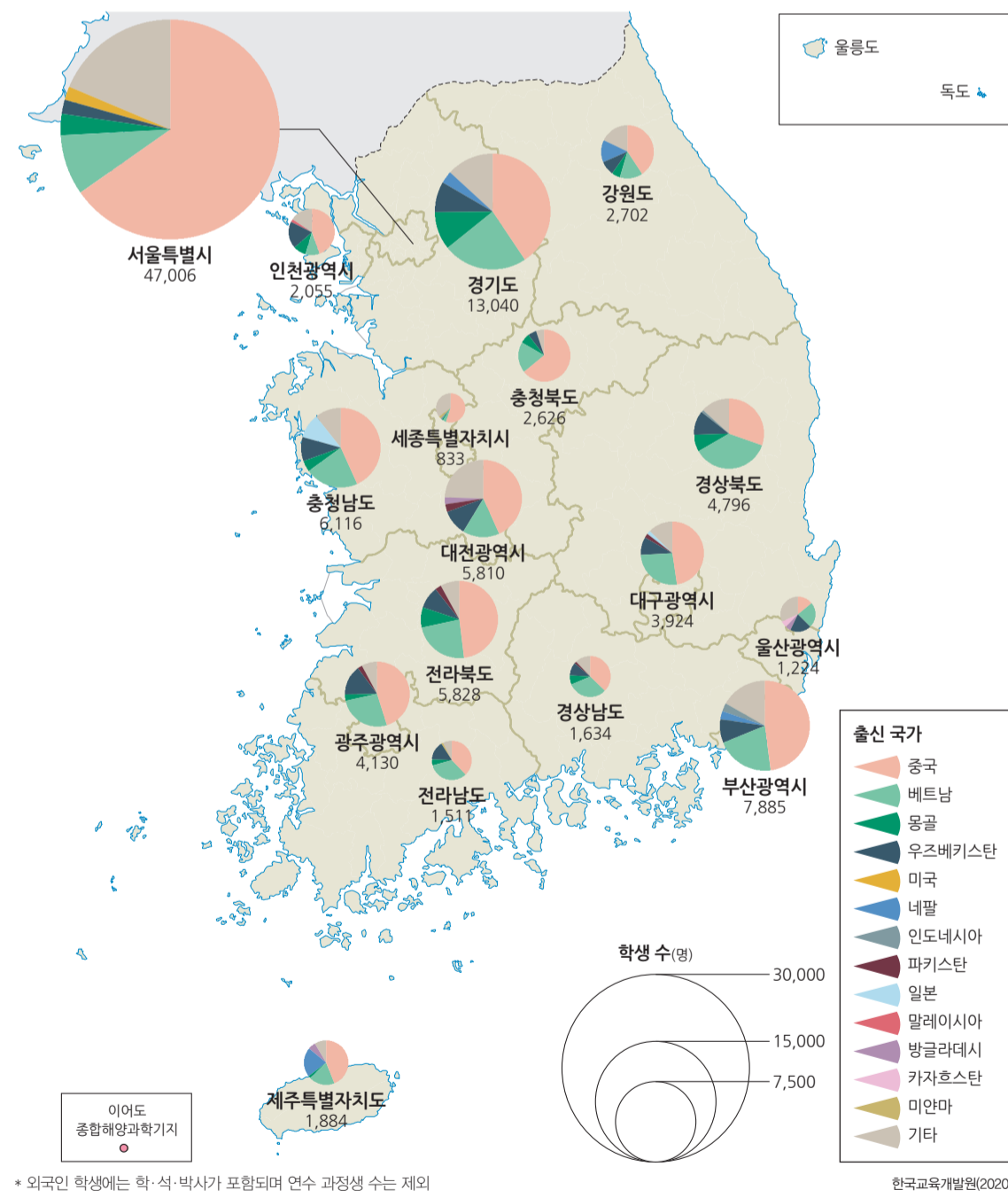
박사 학위자 분포(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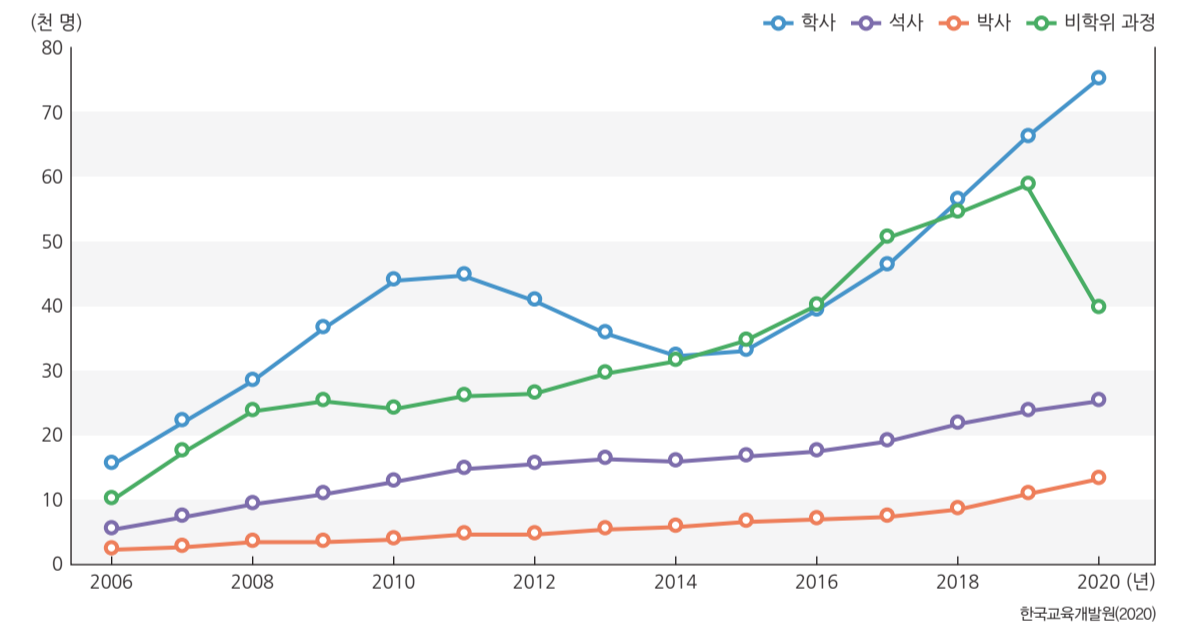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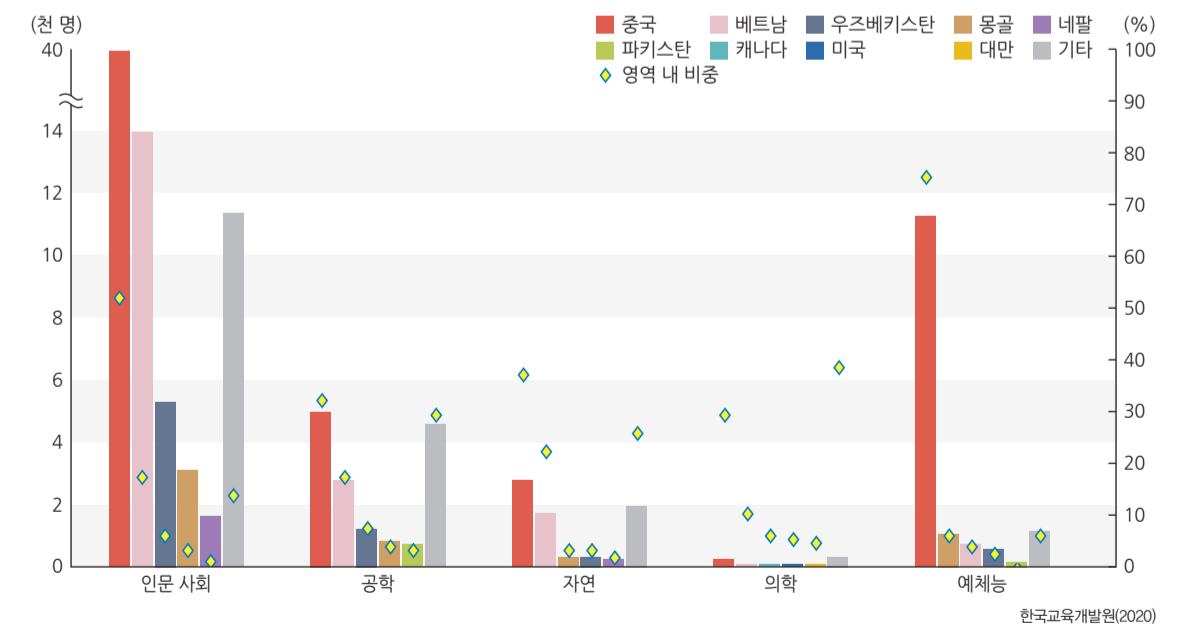
출신국가별 외국인학생의 분포(2020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06~2020년)



전공 유형별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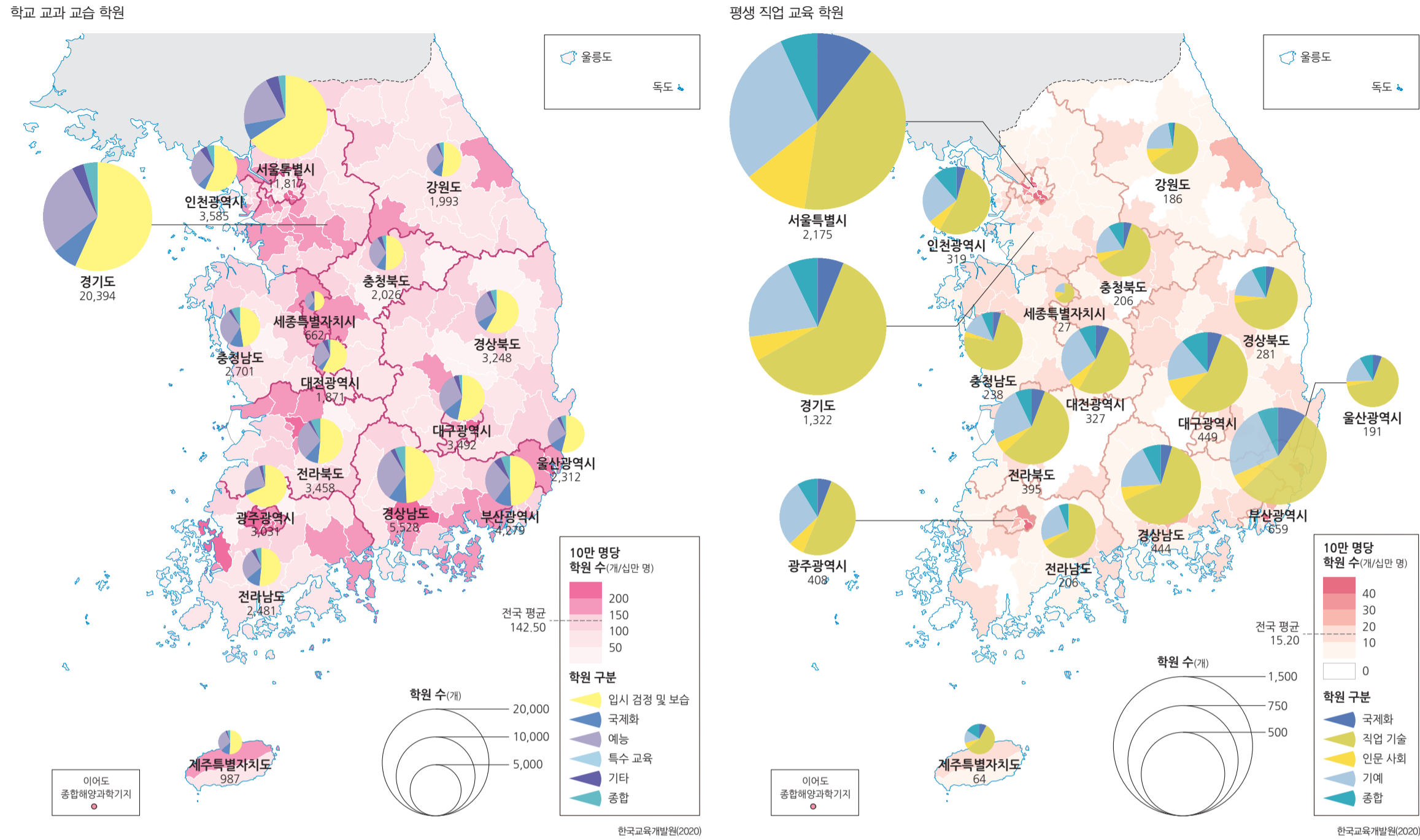
수의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종합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원을 근간으로 하여 종교인 양성, 경영자 교육, 의료인 양성, 법조인 양성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많은 대학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인 교수는 박사 학위자가 대부분이며 박사 학위 취득 학교는 국내 대학이 가장 많다.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공학과 자연, 사회 및 의약 계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박사 학위 취득자가 전체 박사 학위 취득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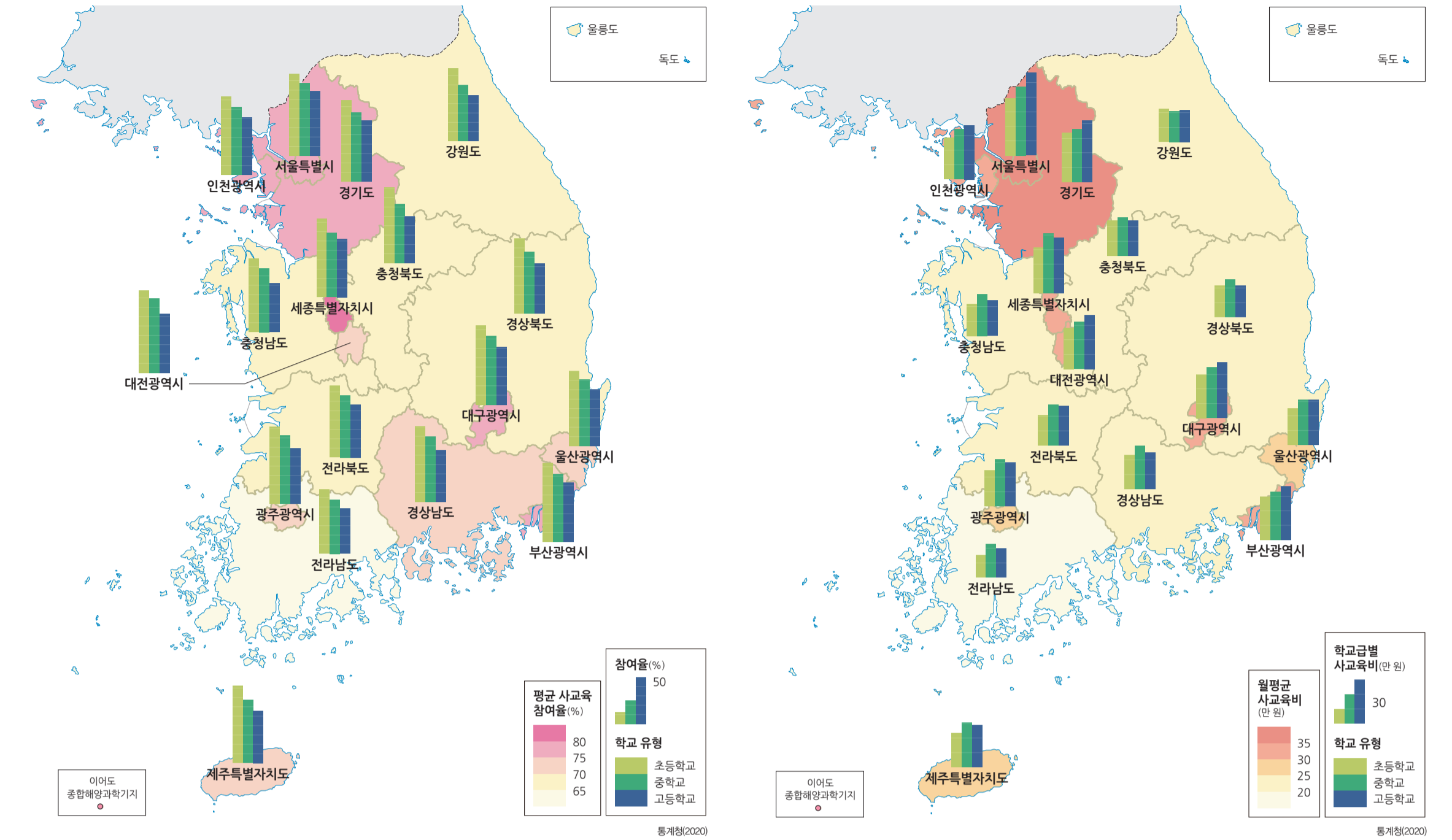
전체 고등 교육 기관 중 비학위 과정을 제외한 학·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사 학위 과정 유학생 수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2015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7만 5천여 명에 달하였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많지만 지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등 기타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전공 유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 비중에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의학 계열의 경우 다른 전공 분야와 달리 캐나다, 미국, 대만 등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사교육 및 기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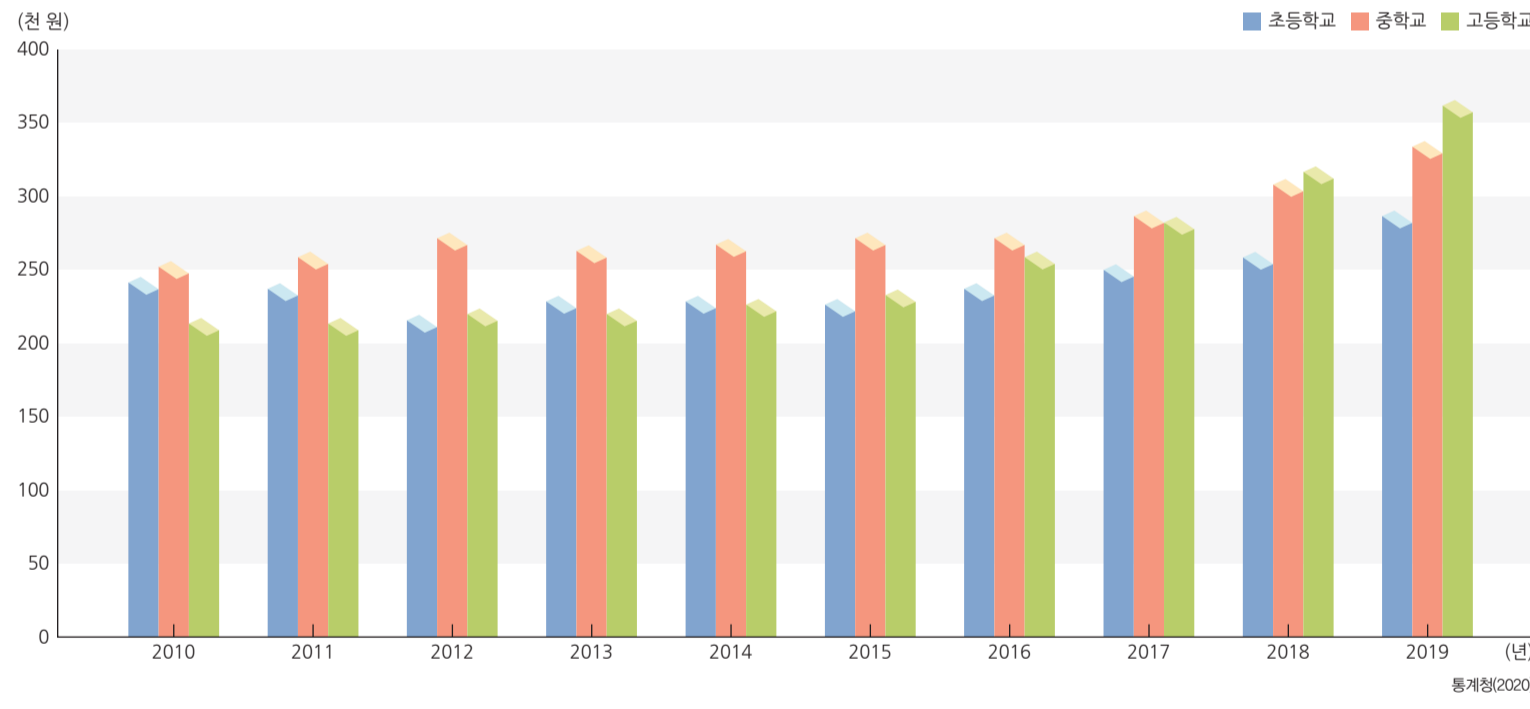
유형별 시설 학원(2020년)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2019년)



학생 1인당 월간 사교육비 지출(2010~2019년)



한국의 교육열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 지는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은 사교육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교육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은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016년 약 280,000원으로 총가계 지출의 11%를 넘는 수치이다. 이는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고려하면 교육비 지출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적지 않다. 그러나 총 가계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임시 제도의 개편과 선행 학습 금지, 교육 방송의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의 참여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 사교육 학원 밀집도가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 역시 대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교육은 교육 대상과 목적 등에 따라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평생 직업 교육 학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사교육과 관련한 학원은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의미한다.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은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평생 교육과 전문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원 수와 강사 수, 학습자 수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촌 지역은 평생 직업 교육 학원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시 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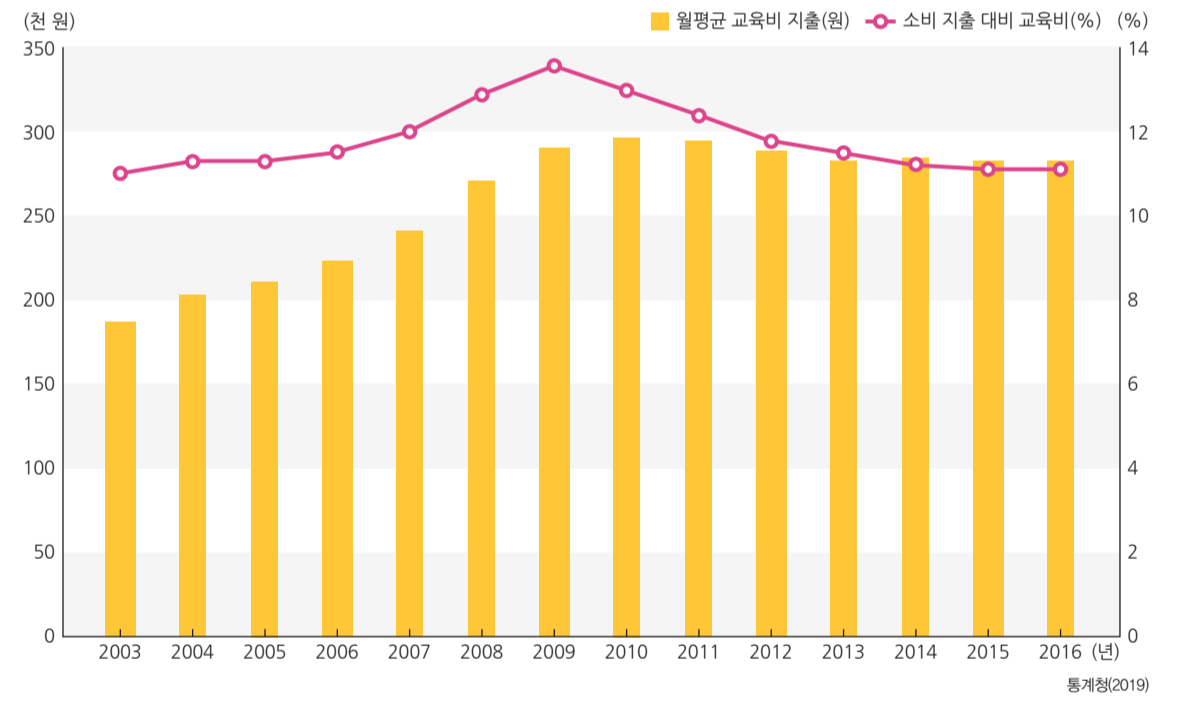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

련한 시험 제도로서 지역과 졸업 자격에 따라 응시자 수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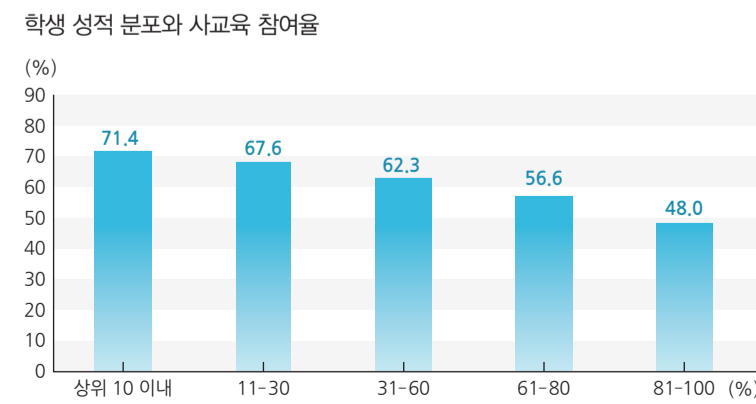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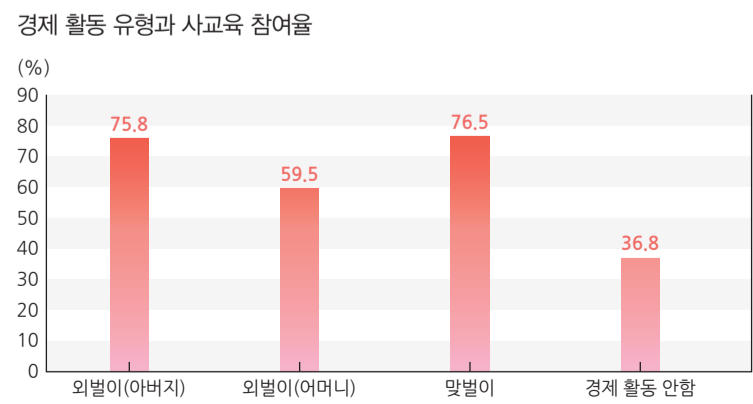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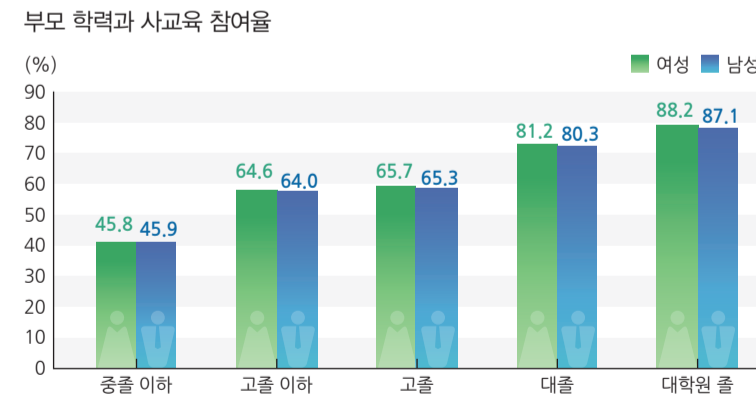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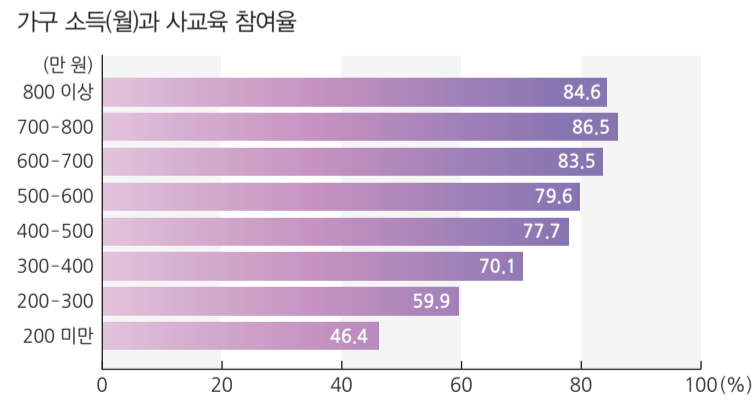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 교육 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 교육 기관은 외국에서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학교이며,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게 본국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이러한 외국인 학교는 각 국가의 교육 과정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한국인의 일부에게도 입학할 허가를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제주 국제 학교가 설립되었다.

외국 교육 기관은 인천 송도 국제 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서 외국 교육 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2012년 이후 설립되었다. 대안학교 및 특성화학교는 기존의 표준화된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안 교육, 종교, 음악, 글로컬 인제 양성, 자연 친화 교육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여 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가구 소비 지출과 교육비 지출(2003~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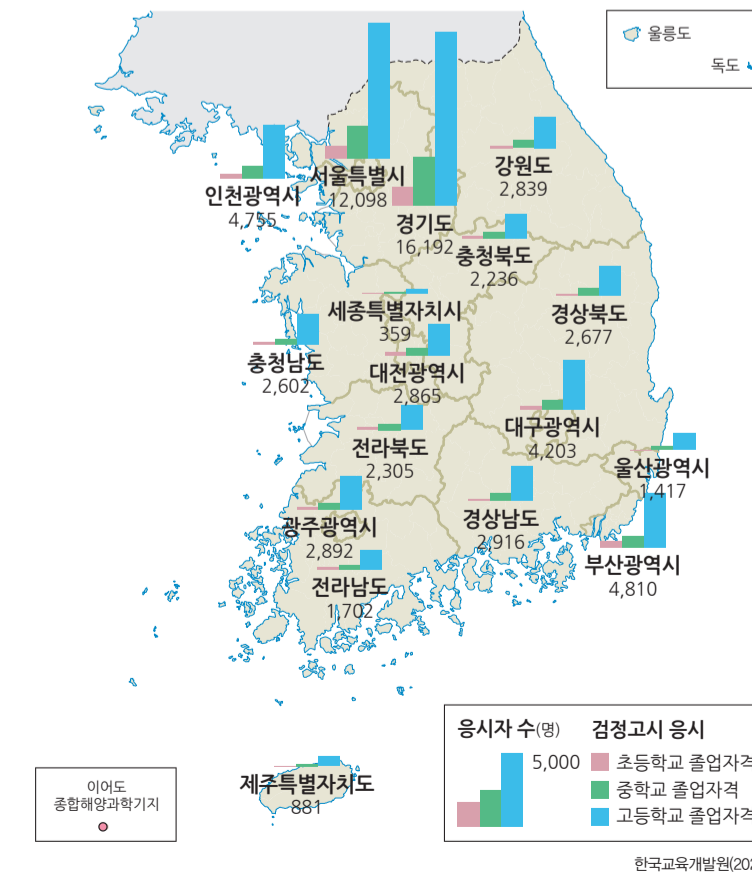
사교육 참여율(2020년)



대안학교 및 특성화 학교(2021년)



검정고시 응시자 수(2019년)



국제 및 외국인 학교(2020년)

